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STUDY ON THE MISSIONAL EFFECTIVENESS OF WOMEN'S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HOSANNA MEDICAL MISSION CENTER**

written by

**PRISCILLA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Seyoon Kim

May 25, 2002

**A STUDY ON THE MISSIONAL EFFECTIVENESS OF  
WOMEN'S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HOSANNA MEDICAL MISSION CENTER**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PRISCILLA PARK**

MAY 2002

여성 사역의 선교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박 브리스길라

2002년 5월

## 국 문 초 록

여성 사역의 선교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Priscilla Park

목회학 전공

풀러신학대학원

한국 기독교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제한되어 왔다. 이는 유교적인 전통과 더불어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온 그릇된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몇몇 권면들에 대한 그릇된 해석도 사역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기독교 사역에서 여성을 제한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에 대하여 지녔던 태도나 바울의 서신의 상황성을 이해한다면 여성의 사역의 참여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온 여성들의 역할은 한국 교회의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역참여는 늘 부정적이었다. Hosanna Medical Mission Center는 지난 20년 간 여성의 의료선교를 통하여 여성 사역에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실을 맺어왔다. HMMC의 여성들은 사역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선교에서의 효율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전문인 사역, 특히 의료사역에 있어서 여성만의 섬세함은 선교 대상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계 선교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여성은 더 이상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다. 오히려 힘든 선교적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무궁한 자원일 뿐이다. 복음에 대해 적대시하는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문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 여성들의 사역참여는 세계 복음화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Theological mentors: Jong Kii Min, Ph. D. (?)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 2 장 기독교 전통에서 본 여성의 차별 .....	4
제 1 절 구약에서의 여성관 .....	5
1. 유대인의 신관과 여성 .....	5
2. 가문계승의 도구로서 여성 .....	6
3. 남편의 종속물로서의 여성 .....	6
4. 악의 근원으로서의 여성 .....	6
제 2 절 신약에서의 성 평등 .....	7
제 3 절 교부시대 .....	8
제 4 절 중세기 .....	8
제 5 절 개혁교회 .....	9
1. 루터의 여성관 .....	9
2. 칼빈의 여성관 .....	10
제 6 절 현대교회 .....	10
제 3 장 예수님과 여성 .....	12
제 1 절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여성들 .....	13
1. 마리아 .....	13
2. 엘리사벳 .....	14
3. 여선지자 안나 .....	15
제 2 절 예수님의 사역의 수납자로서의 여성들 .....	15
1. 시몬의 장모 .....	16

2 나인성의 과부 .....	16
3 참회하는 여성 .....	17
4 야이로의 딸 .....	18
5 혈루증 걸린 여인 .....	18
6 교부라진 여인 .....	19
제 3 절 제자로서의 여성 .....	20
제 4 절 초기기독교의 제의적 식사와 여성 .....	21
제 5 절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성들 .....	22
1. 사렙다 여자 과부 .....	22
2. 비유속의 여인들 .....	22
제 4 장 바울과 여성 .....	24
제 1 절 바울서신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의 재해석 .....	25
1. 고전 11:2-16 .....	25
2. 고전 14: 33-36 .....	29
3. 그밖에 문제되는 구절들 .....	30
4. 기독교의 자유현장 .....	32
제 2 절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	32
1. 겐그레아 교회의 뵈뵈 .....	33
2. 부부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	35
3. 탁월한 사도로 불리운 유니아 .....	37
제 5 장 한국 교회사에서 본 여성 사역 .....	39
제 1 절 한국 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	39
1. 애니 엘러스(A. J. Ellers) 감리교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 .....	40
2. 독립 운동가 류관순 .....	40
3. 교육가 김활란 .....	40
4. 법률가 이태영 .....	41

제 2 절 한국교회 성장과 여성의 역할 .....	42
1. 여전도사의 역할 .....	42
2. 여집사들의 여선교회 활성화 .....	43
3. 여성 신도들의 활동 .....	45
제 3 절 한국 교회와 여성 안수 .....	45
1.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하여 .....	46
2. 여성장로 장립에 대하여 .....	47
제 4 절 한국 여성의 의식변화 .....	48
1. 가정관 .....	48
2. 결혼관 .....	49
3. 생활관 및 직업관 .....	50
4. 여성의 잠재력 .....	51
제 6 장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여성의 의료선교 사역 .....	53
제 1 절 의료선교 .....	54
1. 의료선교의 목적 .....	55
2. 의료선교와 전도 .....	56
3. 의료사역과 영적사역 .....	57
4. 현대의학과 신유 .....	57
제 2 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선교사역 개요 .....	60
1.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설립 .....	60
2.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목표 .....	61
3.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 .....	62
제 3 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VISION 21' .....	64
1. 사역의 재정비 .....	64
2. 네트워크 결성 .....	65
3. 단기선교사 파송 .....	66
4. 목회자 무료 검진 .....	66

5. 불법 체류자 검진 .....	67
6.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 비전 영역 .....	68
제 7 장 의료선교의 역사적 고찰과 간호선교 .....	70
제 1 절 의료선교의 역사적 고찰 .....	70
1. 의료선교의 기원과 발전 .....	70
2. 한국에서의 의료선교활동 .....	74
3. 의료활동이 남긴 유산들 .....	76
제 2 절 간호선교 .....	77
1. 간호선교의 개념 .....	77
2. 간호선교의 성경적 근거 .....	79
제 8 장 효율성을 위한 의료선교의 패러다임 .....	82
제 1 절 의료선교의 허와 실 .....	82
1. 의료선교의 허 .....	83
2. 의료선교의 실 .....	83
제 2 절 단기 의료선교 .....	85
1. 단기선교의 유형 .....	85
2. 단기선교의 목적 .....	86
3. 단기 의료사역의 가능한 형태 .....	87
제 3 절 자비량 의료선교 .....	88
1. 자비량 선교의 장점 .....	90
2. 자비량 선교의 단점 .....	91
3. 자비량 선교의 영역 .....	91
제 4 절 전문인 선교사역을 위한 자질 .....	92
1. 일반적인 면 .....	93
2. 특별한 면 .....	94



제 9 장 결 론 .....	96
제 1 절 요약 .....	96
제 2 절 제언 .....	97
제 3 절 21세기 의료선교의 방향 .....	98
1. 미전도 종족을 집중하는 선교 .....	98
2. 여성 의료 선교사의 양성 .....	99
3. 공동체 회복 .....	99
참고문헌 .....	101
Vita .....	10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history)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이 남자의 이야기만을 역사로 다룬다면 여자의 이야기(herstory)는 어디 있겠는가? 이같은 여성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sup>1)</sup> 특히 21세기를 맞이한 요즘 세상은 인간 삶의 양상은 물론 남성과 여성의 지위적 관계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새로운 밀레니움의 역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뉴 패러다임이다. 과거 육체적 힘이 중요시 되어왔던 농경사회와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현대는 지적 능력과 창의력이 삶을 지배하는 정보화시대다. 이제는 신체적 힘의 우열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남성 지배질서하의 남성상위시대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이래로 일기 시작한 여성 의식화 교육은 많은 이들에게 여성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가정에서부터 가부장제도 대신 부부간의 자연스런 가사 분담이 서서히 보편화되어 가는 남녀공존의 실제적인 평등화의 구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해 발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여성 개발원이 내놓은 ‘2000 여성 통계 연보’에 따르면 특히 장, 차관 및 행정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sup>2)</sup> 이처럼 의사 결정직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이 적다면 여성

1)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8.

2) 중앙일보, 2001년 3월 20일자 사설.

의 시각과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한국에서는 2001년 3월에 ‘행정 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정부의 장관직에 마침내 여성이 입성을 했다. 유교의 가부장 중심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직업 관료 출신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sup>3)</sup> 여성도 이제 서서히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독교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여성 목사의 수가 1천명을 넘어 서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장 합동측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이 여성들에게 안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측에서도 교회 헌법을 개정해 여성 목사 25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sup>4)</sup> 한국 개신교의 약 70퍼센트 정도를 이루고 있는 여성 성도들도 그 동안 남성 위주의 목양을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여성 문제 등이 사회에 부각되면서 여성 목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참여가 사회 각 분야와 기독교 사역의 제 분야에서 서서히 두드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정도나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는 여성에 대하여 갖는 사회 통념과 기독교 전통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특히 여성이 사역을 수행할 때 그 전문성의 인정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여성의 사역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여성의 사역 참여를 조장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호산나 의료 선교회에서의 여성 간호사들의 사역참여와 의료 선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함은 물론 세계를 복음화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 여성을 활성화함으로써 21세기의 교회의 부흥과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3) 중앙일보, 2001년 3월 20일자 사설.

4) 미주 크리스찬 신문(L.A. 판), 1990년 11월.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선교사역의 주역으로서의 여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논문을 위해 주제와 연관된 전문적인 서적과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였고, 구체적인 여성 사역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로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을 연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각 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사역적 부정적인 현실을 소개하고 본 논문의 목적으로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사역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독교 전통 속에서 찾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고 적극적인 시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서 중에서도 여성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과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연구될 것이다.

제 4장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몇몇 문제구절을 살펴보고 바울의 여성에 대한 입장을 논하게 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여성도들의 역할과 공헌, 그리고 사역을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사역참여를 위한 몸부림으로서 여성안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제 6장은 호산나 의료 진료소가 중심이 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Hosanna Medical Mission Church: HMMC)의 여성의료사역을 소개하고 의료선교와 관련된 몇몇 주제들과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 7장에서는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주된 사역인 의료사역의 뿌리로서 의료 선교의 역사를 고찰하고 여성들의 사역의 주된 부분인 간호선교에 대해 그 개념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 8장은 의료선교의 허와 실에 대하여 논하고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단기선교와 자비량 의료선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 9장은 본 논문의 요약 및 여성 의료선교에 마지막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 제 2 장

## 기독교 전통에서 본 여성의 차별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성차별에 관한 문제이다. 성차별 문제는 1970년대 이래로 대두된 여성신학을 필두로 기독교 사역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성차별이란 흔히 사람을 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여성이 차별 받는 경우에 쓰인다.

로즈메리 류터(Rosemary Ruether)는 여성의 성차별을 광범위하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를 하는데, 제1단계는 여성을 남성세력의 대상이나 도구, 종으로 여기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여성의 물상화, 대상화를 넘어서 과대망상의 차원으로 전개된다. 즉 여자를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로 보아 악마적 세력과 교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는 억압된 타자를 낭만적으로 이상화시킴으로써 여성을 신비스런 '영혼의 힘'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이다.<sup>5)</sup>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회는 가부장 제도의 뿌리가 깊으며 오랜 성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6)</sup> 그리고 지금도 여성은 성직에서 제외되는 교회나 교단이 많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 천부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기서는 성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거룩한 책으

5) Rosemary Ruether, Religion and Sexis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292-302

6)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82.

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가져왔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초자연적 계시인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에 근거하여 사물을 절대화하여왔다. 그러나 이제 '가부장적 성격의 성경이 어떻게 여성들의 종교적 기반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여성신학적 관점은 성경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비판 도전하면서 이전과 다른 이해를 요구하게 된다.

## 제 1 절 구약에서의 여성관

비록 구약성경에서 드보라, 홀다, 그리고 노아다(느 6:14)와 같은 여선지자들의 활동에 관해 고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sup>7)</sup> 구약 전체에 흐르는 여성관은 극히 차별적이거나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다. 물론 이것이 가부장적 억압과 예속을 조장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선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있다.

### 1. 유대인의 신관과 여성

구약에서의 성차별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다. 고대 종교에는 종종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절대적인 유일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은 여신을 숭배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유일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히브리 종교 자체에 있던 여신의 요소를 제거해버렸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곳이 이방문화와 이방종교, 특히 여신을 섬기는 민족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히브리인은 소수 민족으로서 이방문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체 방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히브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는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야만했다. 더욱이 그들은 희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희랍문화는 여성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문화였다.<sup>8)</sup>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절대적인 가부장 제도를 고수했다. 그리고 유대인을 단일민족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했고(신 7:1-4), 비유대계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7) 정석기, 주님의 여성이 되려면 (서울: 나눔사, 1993), 48-49.

8)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84.

아이는 그 어미와 함께 모두 외국으로 쫓아 버렸다(스 9:1-10). 이는 외국 여자들을 여신 숭배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2. 가문계승의 도구로서 여성

히브리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의 가계를 이어주는 도구로서 묘사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창 16:1-16)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자(창 29-30장), 자신들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노력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이 자손이 없어 죽자 며느리 룓을 그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에게 시집보내 전 남편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한다(룻 4장). 보아스가 룓의 전 남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이름과 혈통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했다. 신 25장에는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 있는데, 다말(창 38장)이 그 실례이다. 남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두 시동생과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나중에는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는 희귀한 일도 벌어진다. 이러한 것이 모두 가문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단편들이다.

## 3. 남편의 종속물로서의 여성

성경에서 여성은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출 20:17). 십계명 속의 이웃의 소유에는 아내가 포함된다. 마치 그 십계명은 남자에게만 내려진 것처럼 보인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은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로 다윗을 규탄한다(삼하 12장). 전쟁에서 잡히는 여자포로는 전리품이 된다(신 21:10; 민 31:18). 여자를 남자의 편의대로 처분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를 자기의 편의대로 여동생이라고 한다(창 12:10-20; 20:1-16). 여자는 성적 노리개로 이용당하기도 한다. 룓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를 모르는 딸들을 내주겠으니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창 19:4-9).

## 4. 악의 근원으로서의 여성

구약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아담을 유혹한 하와(창 3장)로 해석하고 인류



타락의 책임도 하와에게 돌리며 이를 비약하여 여성을 악의 근원으로 본다. 노아 홍수 사건 또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인데, 구약 성경은 “하늘의 아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해서”(창 6:1-4)라고 서술함으로 여성이 그 악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부정한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레 12:2-5에서는 산모의 부정을 말하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결례의 규정이다. 레 15:19 이하에서도 여성의 생리현상인 월경은 7일간 부정하고 월경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자리에 닿았던 사람도 부정하다고 규정한다. 출 19:14-15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할 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명령한다. 레 15:25에서도 월경이 아닌 하혈의 경우에도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여 하혈이 멎은 후 7일간은 부정하다.<sup>9)</sup>

## 제 2 절 신약에서의 성 평등

구약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 사회에 오신 예수님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과 행동으로 여성을 성차별의 굴레에서 벗겨준다.<sup>10)</sup> 예수님은 여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존귀한 인간으로 회복시킨다. 예수의 말씀은 여성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은 누구의 종속물이 아닌 한 인격체인 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용해가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일대를 다녔고(요 8:1-3), 마지막 예수님의 처형장까지 따라갔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그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만큼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했고 인간을 모든 굴레에서 풀어주기 위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시려는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첫 증인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남자 제자들

9) 유춘자 외 12인,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1), 198-204.

10) Ruether, Religion and Sexism, 117-147.

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나 4복음서에서 그렇게도 분명하게 보여준 여성에 대한 예수의 긍정적인 언행은 그 후 기독교 역사에서 또 다시 성차별이라는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 제 3 절 교부시대

교부시대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원론이 성했다. 모든 사교의 원형이 이원론적이어서 여자는 육체이고 남자는 정신, 여자는 악하고, 남자는 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순교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콘스탄틴(Constantine) 황제(274-337)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후, 기독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특별한 충성을 표시하는 방편으로 금욕주의가 성하게 되었다. 이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여성혐오 사상과 결혼기피 현상이 극심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성욕을 억제한다는 것이 여성을 미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남성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성행위는 원죄로 더럽혀진 것이고 성행위로서 태어나는 아이는 원죄를 이어받는다고 보았다. 여자가 구원받는 길은 독신으로 남자와 같아지는 길뿐이라고 보았다. 제롬은 “여성이 성을 포기하고 처녀나 과부로 지내면서 금욕생활을 하면 찬양을 받게 된다”고 했다.<sup>11)</sup>

### 제 4 절 중세기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성과 육체의 동일체로 보았다. “남성에게는 지적 요소가 많고 여성에게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이브가 먼저 유혹을 받았으며 예수의 부활시

11) E. Clark and H. Richardson, “Feminist Source Book of Christian Thought,” in Women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1977), 37-77.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여성의 이해력이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인간의 최고 행복은 명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성을 많이 지닌 남자가 유리하고 여성은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결혼의 첫째 목적은 출산과 자녀교육이고, 둘째 목적은 죄에 대한 구제책 즉 정욕으로 불타지 않도록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결혼은 필요악이요 여성은 그 필요악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 남성에게 복종하든지 동정녀가 되는 길이다”고 했다.<sup>12)</sup>

중세기 여자에 대한 적의가 최고 절정에 달한 것은 15-17세기의 마녀 사냥과 학살이다. 그것은 13-17세기에 걸쳐 100만이나 되는 여성들이 교회에 의하여 마녀로 몰려서 억울하게 고문되고 처형된 사실이다. 중세기 교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14세기 흑사병과 100년 전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그 책임을 악마의 장난이라 규정하고 마녀 색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1484년 교황 이노센트 8세가 내린 교서에 의해 출판된 마귀론 백과사전은 여성에 대한 공포의 혐오가 최악에 이른다. 마녀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고문 방법이 이용되었다. 마녀로 몰린 측은 어떤 결정적인 공동체를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힘이 없었다. 다만, 강인한 개인만이 사회적인 편견에 대항할 수 있었는데, 그런 강한 저항력을 가진 것 자체가 마녀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결국 마녀는 중세기 사회불안의 속죄양이 되었던 것이다.<sup>13)</sup>

## 제 5 절 개혁교회

### 1. 루터의 여성관

개혁교회 즉 마틴 루터는 결혼 생활을 교역자의 중심으로 삼았고 기독교인의 가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개혁교회 속에 새로운 가족 개념과 가정 개념을 나타내게 했으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세기의 입장을 따랐다.

결혼은 성도가 세상 문제(애정, 갈등, 기저귀 빠는 것, 가족 부양, 교육, 죽음 등)와 싸우는 동안에 신앙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신앙의 학교로 보았다.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주장에서 가정은 여자의 종교적 소명의 새로운 중심부로

12) Ruether, Religion and Sexism, 213-266.

13) Clark and Richardson, Women and Religion, 116-130.

여겨졌다. 부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갖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엌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녀는 거룩하고 복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은 몸과 마음에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으나 그녀의 자궁과 출산이 이 모든 결점을 덮어 버린다고 보았다. 또 성욕을 구제하는 올바른 방법은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수도원 속으로 숨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칼빈의 여성관

개혁교회의 또 다른 한 축인 칼빈에 있어서도 전통적 여성관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회에서의 여성의 격하된 역할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특히 교회직분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의견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칼빈은 공적 예배나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여성의 활동을 극소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칼빈은 공적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만 위탁한 직무로 이해하며 이것은 바로 바울이 견지하는 불변하는 법적 진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직분 문제를 다룬 딤후 2:12의 주해에서 칼빈은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바울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을 훈계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남성에게만 그러한 직분을 주었기 때문이다.<sup>15)</sup>

결국 칼빈은 그의 주석을 통해서 남자의 권위가 여성의 그 것보다 우위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통적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또한 제네바 교회의 현실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sup>16)</sup>

14) 심창섭, 목회와 신학, 1993년 3월호, 109.

15) 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 vol. 9, 성경주해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1), 447.

16) 심창섭, *ibid.*, 116.

## 제 6 절 현대교회

여성에 관한 현대교회의 입장은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교리가 잘 대변하여 주는데 그의 주요 여성관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칼 바르트는 먼저 남녀가 동등하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적인 차이의 인식은 약함과 제한의 차이를 인식함이다.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것은 일종의 욕망이다. 그는 또한 여성적인 요소를 부각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과 남자 사이의 질적인 차이는 남자와 여자로 연장된다. 주종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적이다. 그러나 남자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여자는 그의 주인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를 주인으로 믿는 데 구원이 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적인 사랑으로 묶여 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의 의사 소통의 형태는 복종이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서 곧 그에게 복종하는 자유이다. 하나님의 자유는 선택적이며 주인이 되는 영감적인 것인 반면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선택적이다.

여자의 일, 과제, 기능은 남자가 앞에서 자극하고 인도하고 영감을 주면서 찬성해야 한다. 또한 여자의 신앙적 응답은 자기의 합당한 위치를 지키고 남자의 인도함에 따르는 데 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성은 이미 해방되었다. 여자가 전적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그녀의 항거는 남자가 여자를 억압한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이다.<sup>17)</sup>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전통에서 본 여성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성을 악하게 여기기까지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지극히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남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역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서서히 의구심을 낳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17) Ruether, Religion and Sexism, 319-328.

### 제 3 장

#### 예수님과 여성

제 2장에서 이미 논하였듯이 구약에서 몇몇 여성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다루는 비중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나 사역에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된다. 또한 구약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지극히 부정적이었고 또한 남자에게 종속된 피동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구약의 가부장적인 속박의 굴레에서 여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sup>18)</sup>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의 해방자임은 그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에만 여성을 다룬 본문이 요한은 8개이고 마가가 20개, 마태가 36개이며 누가는 무려 42개로 총 106회나 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sup>19)</sup>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누가복음은 그 비율면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본문이 많이 있다.<sup>20)</sup>

누가복음의 여성을 다루고 있는 42개의 본문 가운데 3개는 4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그 외 9개는 세 개의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며 또 다른 5개는 누가와 마태에만 등장하며 2개는 단지 누가와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다.<sup>21)</sup> 나머지 누가복음 가운데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3개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며 다른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여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여성을 다룬 본문이 그토록 양적인 면에서나 수적

18)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156.

19) Leonard Swidler, Biblical Affirmations of Wome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54.

20) Ibid., 255.

21) Ibid.

인 면에서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신약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과 그 중 몇몇 여성들을 통해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을 다루려한다.

## 제 1 절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여성들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을 묘사하면서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부터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시작부분에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몇몇 여성들을 등장시키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중에 포함된다. 그들은 친척지간 이었다(눅 1:36). 이 두 여성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의 유아시절과 관련해 나타나는 또 다른 여성은 여선지자 안나이다.(눅 2:36-38)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서론 부분에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인상을 맨 처음부터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여인은 그들이 누가의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세 여성 각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계시하는 계시의 방편(a vehicle of revelation)이며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표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소리로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 마리아

누가복음에서 여성이 계시의 방편이 되는 가장 명백한 형태는 문자적이며 생물학적인 것이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

본적인 방식에 있어 계시의 방편이다. 여성이 없었다면 이 구원사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성이 악의 근원으로 묘사된 것에 비하면 과히 극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마리아는 구원을 위한 문자적인 원천이며 구원을 가능케 한 자이다.

그러나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은 문자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직접적인 소개형식은 저자인 누가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복음서 독자들과 극적이고, 직접적이며, '듣는 듯한' 관계를 갖게 하고자 사용한 것이다.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면 독자는 마치 그녀가 엘리사벳의 앞에 서만이 아니라 바로 독자 자신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된다.

하나님이 여성인 마리아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1:49)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과 자기를 두려워하는 여러 세대들에 베풀어 주신 '그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마리아의 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유대적인 관념을 확인하고(1:47) '그의 능하신 행동(1:51)'의 실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기록하시다(1:52), 이스라엘(그의 종)을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1:54), 사람들(우리 조상)로 더불어 말씀하신다(1:56).

마리아의 노래는 신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지만 자비로운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의 원수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시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되신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 여성인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비천하다. 교만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으며 권세도 없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선택되고 혹자들이 갈망하는 위치에 올라간다. 장차 오는 세대들이 그녀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종속의 굴레에 매인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여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2.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시의 한 방편이다. 그녀는 나이 들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구세주가 되는 구원을 위한 동



일한 계획에 공헌할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의 잉태와 그 전후 정황은 궁극으로는 신적인 개입에 의해 임신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들을 낳는, 때로는 나이 많은 불임의 여인이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적인 중심사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1:35)는 명제를 예증하고 있다. 엘리사벳은 불임에 대해 받아야 했던 수모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들 사이에 있었다(1:15). 구약의 가부장 중심의 사상은 그것이 그녀의 남편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그녀를 천한 자 중에 천한 자로 내어 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녀의 아들이 비록 구세주가 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다(1:15). 그 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1:15b) 주 앞에 앞서가서 이스라엘 자식들을 많이 주께로 돌이킬 것이며(1:16) 주를 위하여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1:17). 복음서에 의하면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 3. 여선지자 안나

이 여인은 누가를 통해 알려진 것(2:36-38) 외에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알려진 것이 없는 여선지자이다. 그녀의 나이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활 상태는 그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안나는 성전에서 마리아, 요셉, 예수 그리고 시므온에게 다가와 그녀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장래를 예루살렘의 구속과의 연관하에 해석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안나의 예언적인 소리는 예수님의 앞날을 구속에 헌신되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남자 선지자가 아닌 여성 선지자인 안나에 의하여 예언되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여성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에 새로운 삶의 위치를 정하여 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구세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제 2 절 예수님의 사역의 수납자로서의 여성들

만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이라면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계층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여성들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눅 4:18-20(사 61:1-2, 58:6을 연결한 것)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며 누가가 이들 이사야서의 본문에 메시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 4:18에 있는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의 용법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대한 예수의 사역은 개인으로서 여성들에게 메시아적 축복을 확대하는 것이다.

### 1. 시몬의 장모

공관복음의 전승 가운데서 예수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은 처음 여성은 시몬의 장모다. 이 짙막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의 순서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심한 열병'(4:38)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자(4:39),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으며 일어나 앓고(*anastasa*), 그녀는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다(*diekonei*). '*anisterni*'라는 헬라어의 사용은 부활에 대한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재담을 암시한다.<sup>22)</sup> 초대 기독교의 제의적 식사를 언급하는 *diekonei*의 사용은 누가의 시대까지 집사를 연상시켰을 것이다.<sup>23)</sup>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 받았기 때문에 수종을 들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녀는 일으켜졌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가부장적 사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그들이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가부장적인 제도로 인해 받았던 상처에서 치유 받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이다.

### 2. 나인성의 과부

예수의 사역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던 다음 여성은 나인성의 과부였다(눅 7:11-17). 예수는 이 여인의 독자가 장례식을 위해 운구되고 있을 바로 그때 나인성에 도착하셨

22) I. Howard Marshall, 누가복음, vol.1, 강요섭 역, 국제성서주석 (한국신학연구소, 1983), 252.

23) R. C. H. Lenski, 누가복음, 진요섭 역, 주석성경 (서울: 백합출판사, 1977), 238.

다. 그녀는 홀몸이었다. 누가는 그녀에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동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다. 6장21절의 축복이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울지 말라”(7:13)는 말 가운데 살아난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으로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그녀의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명한다(7:15). 그 젊은이는 일어났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은 그 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7:15). 누가에 의하면 그 여인을 위하여 베풀어진 이 동정심 어린 사역을 목격했던 무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것으로 해석했으며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다(7:16).

이 동정심 어린 행동을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7:16). 누가복음에서 최소한 여기까지 여성들은 부활해야 할 특별한 필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인식하셨고 반응하신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표징인 것이다.

### 3. 참회하는 여성

눅 7:36-50의 참회하는 여성은 그녀의 무명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 가운데 하나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닦고 기름을 바른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행동은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사랑의 교훈을 준다. 죄인들과 여성들을 향한 이 바리새인의 경멸은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의 죄인인 것을 알고 그녀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영되어 있다(7:39).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경멸을 거절한다. 다소 우회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7:41-43).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한다(7:44-46). 여인의 큰사랑은 그녀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반영해 준다(7:47).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받은 용서에 의해 그 여인을 판단한다. 예수님은 비록 그 바리새인이 죄를 덜 지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덜 용서받은 자라고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구원받았으며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무언의 잘못된 가정을 갖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었다.

바리새인은 그럴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순수한 영적인 구원과 그 결과인 평안을 얻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는 거룩하신 이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둘 다를 놓치고 말았다.

#### 4. 아이로의 딸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공관복음의 본문인 눅 8:40-56 또한 아이로의 딸을 일으킨 이야기 가운데 여성을 부활과 관련짓고 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열두 살 먹은 외딸을 위한 아버지의 청원에 응답하여 행동한다(8:40-42). 그 아버지는 홀아비가 아니었으며(8:51), 그 아버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동정심을 가졌다는 그 어떤 언급도 없다. 다시금 우는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리라는 6:21의 말씀이 되살아난다(8:52). 비록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뿐이다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8:52).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명하신다. 그녀가 일어나고(8:54-55)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다.

그 소녀는 열두 살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월경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며 하나의 여성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나이다. 이 소녀의 나이는 비유적인 신분에 대한 상징이다. 그녀는 가부장제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여성들을 대표한다. 음식에 대한 언급이 초대 기독교의 제의적 식사에 대한 암시라면 이 소녀의 부활은 그녀에게 초대교회의 식사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석자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았으나 죽어가고 있는 계층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5.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8:43-48) 또한 치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피를 흘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12년 동안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예수님께 탄원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남자는 순간 즉시 치료되었다(8:44).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평안히 갈 수 있었다(8:48). 피의 유출과 그 결과로 인한 부정함(레 15:25)은 이 여인을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서 분리시켰고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입은 상처에서 흐르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영속적인 피흘림을 상징하였다. 레 12:2-7, 15:19에 월경이나 하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66일간을 집에 가두게 했다. 막 5:25-34에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기회가 없이 집밖에도 나갈 수 없고 아무 것도 손댈 수 없었다. 이 여인을 치료하는 신적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그녀에게 흘러들어 갔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감지한다. 그러나 일단 치료가 발생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 여인의 믿음에서 기인한 치료행위였음을 인정한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여성을 긍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또한 사람으로서 여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가부장적 사회에 홀로 대응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 결국 자기의 전 삶을 통해 억눌리고 구박받고 기를 못 뿜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선언하셨다. 이 선언은 이제 더 이상 남자의 지배를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외되고 상실된 것을 회복하여 평화를 누리라는 선언이다.

## 6. 교부라진 여인

눅 13:10-17에 있는 교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을 향한 심오한 비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여인의 결함은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의 결함이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교부라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교부라져 있었다. 교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발견된 곳은 예배처소였던 회당이다. 거기에서 이 여인은 해방이 필요한 포로로 붙잡혀 있었으며(4:16), 종교적인 편견과 정치적 압제의 중압감에 의해 일그러져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저 그녀를 자기에게로 부르셨고 “그러자 그 여인은 즉시 몸을 펴 수 있었다”(13:13). 이 여인의 치료에 대한 반응은 여인들이 몸을 펴고 예배처소에서 말하기를 시작한 현대의 가장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 회당장은 종교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비판한다. 심지어 이 고통 당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마저도 율법의 준수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인의 문화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장애인들의 모습과도 흡

사하다. 이들의 아픔은 '장애인의 해'가 생겨났고 장애인에 대한 행사며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아시아 교회 협의회에서 모이는 선교 대회에 장애인 대표들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장애인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허가하지 안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은 온전해야 한다는 구약적 사고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준엄하게 응답하신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13:15). 그들은 여성보다 짐승을 더 귀히 여겼다(13:15). 예수님의 말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13:16).

이 본문의 문맥은 본문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무리들과 그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주제는 원수와 화해해야 할 필요에 대한 것(12:58)과 사람들을 그 운명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13:1-5),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13:6-9)등 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에 기초하여 미래에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무화과나무를 성전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과 13:31-34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운명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 같다.<sup>24)</sup> 즉 예루살렘의 집 성전은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13:35).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앞 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이나 성전 예배에 여성이 등장하여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은 예루살렘과 확고부동한 종교적 권위의 심장이었던 성전에 향해진 하나님 진노의 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여성이 교부라져 있는 것은 대적과 화평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으며 여성의 운명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오판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오해한 것이었다. 이는 만일 이스라엘의 제도가(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을 풀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파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도 여성을 굽게 한다면 동일한 종말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일 수 있을 것이다.

24) Robert Maddox, The Purpose of Luke-Acts (Edinburgh: T & T Clark, 1982), 48-50.

### 제 3 절 제자로서의 여성

최근에 복음서 연구가들은 예수님의 여성 추종자들 및 여성 친구들의 제자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되는 본문은 누가복음만의 고유한 본문인 눅 8:1-3이다. 이 본문을 통해 복음서 독자들은 여성들이 선교 여행에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다(8:2-3). 이 여인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상당한 재산가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안나는 헤롯의 청지기였던 남편 구사로 인하여 헤롯의 궁궐과 연결되어 있었다. 예수는 때로 그들의 집에 머물렀고(10:38-42),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있었으며(23:49)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였고(23:55)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받은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24:1-10). 예수님은 여인들을 가르쳤으며(10:39, 24:6-8), 그들은 예수님의 발아래 제자들인 것처럼 앉아있었다(10:39). 큐틴 크셸(Quewtin Queshell)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글로바와 동행했던 무명의 제자가 과연 글로바의 아내였는지를 묻고 있다.<sup>25)</sup> 이 무명의 제자 또한 갈릴리에서 온 여자 제자 일 수도 있다. 크셸은 여성들이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 때와 같이 누가의 식탁에 참여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sup>26)</sup> 누가는 독자들이 여성들도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결론은 사도행전에서 지지를 받는다.(행 9:1-2).

### 제 4 절 초기 기독교의 제의적 식사와 여성

복음서에는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제의적 식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께 있어서 여성은 이 식사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들은 식사를 준비했으며 수종들었다(눅 4:39, 8:3, 10:40).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다(눅 10:40). 여성들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여 남자들의 수종을 받았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 대한 은유

25) Quewtin Queshell, "The Women at Luke's Supper," Political Issues in Luke-Acts (Maryknoll N. Y.: Orbis, 1983), 68.

26) Ibid.

로써 diakoneo라는 말이 강조되어있다(눅 12:37, 17:8).<sup>27)</sup> 역할은 바뀌어진 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수종들고 있으며 예수는 웨이터로 행동하고 있다(눅 22:26-27).

이러한 본문과 주제들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아무 문제없이 남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남자 제자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가르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여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성취되는 과업이 있다고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 제 5 절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성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누가복음의 맨 첫 예는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에 나온다(4:25-26). 다른 예들은 비유들에 나온다(15:8-10, 18:1-8).

### 1. 사렙다 여자 과부

“선지자가 지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 예수는 엘리야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고 있다. 예수님은 과부를 ‘여자 과부’(a female widow)라고 묘사하고 있다(4:26). ‘여자’란 말을 ‘과부’라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이 본문에서 의식적으로 이방여인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비유 속의 여인들

눅 15:8-10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을 찾으시기 위해 취하신 하나님의 주도적 관심에 대해 세리들과 죄인들(15:1)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일련의 비유 가운데 하나이다.

#### 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는 불을 밝히고 집을 쫓며 부지런히 그 잃어버린 동전을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15:9). 이 비유에서 여인은 앞의 비유(15:1-7)에서는 목자, 그 다음 비유(15:11-32)에

27) Marshall, 누가복음, 2212-213.



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동전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나타낸다. 여인이 부지런히 동전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열렬한 노고를 나타낸다.

#### 나.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고도 겸비한 청원자를 나타내준다. 비록 잘못된 이유로 행해진 것이긴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옳은 일을 행한 것은 그 여인의 집요한 청원의 대가였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17:22) 기도의 집요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계를 하고 계신 문맥 가운데 등장한다. 계속되는 청원에 못 이겨 옳은 행동을 한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비유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한 의로움이 흘러 넘친다.

그러므로 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소외된 사람의 전형이다. 그리고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기도할 줄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델이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다.

유대인 남자가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 속에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가부장 중심적 사상에 기인한다. 그리고 구약의 여성들의 부정적이고 종속적인 자기정체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시고 인간 평등을 주장하셨다. 오히려 여성들은 예수의 계시의 방편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음성으로 쓰임 받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메시아적 축복의 중요한 수납자들이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유산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신학적 정체를 밝혀주는 데 기여했다.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며 초대기독교의 제의적 식사에 온전히 참여하여 그 준비와 수종드는 일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들은 예수의 교훈적인 자료들에도 등장한다. 여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높은 위치로 고양되기도 했다. 이제 여성들은 사람의 수효에도 들지 못하던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성을 성 때문에 차별하신 일이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성차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여성들을 향한 사역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사역은 예수와 그 분이 가져다주시기를 원했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 제 4 장

### 바울과 여성

여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종종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한쪽은 여자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바울을 여성 해방론자로 규정짓고, 다른 한쪽은 여자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바울을 가부장적 입장의 화신으로 규정짓는다. 서로 다른 이러한 입장은 각각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자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이렇듯 상반된 것은 바울의 신학이 갖고 있는 상황성에 근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서신들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논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각각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각각의 교회의 형편에 따른 바울의 권고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울서신들이 갖고 있는 상황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바울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문제들은 우선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도, 먼저는 문제가 발생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여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있어서 늘 부정적인 비판의 여지를 갖고 있는 고전 11:2-16과 고전 14:34-36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여자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이 본문들에 나타난 여자이해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는 맥락에서 바울의 여자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여자이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진 여자이해가 단지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성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또한 바울 서신들을 관통하는 일관성이 바울 교회의 상황성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서로 다른 대안들은 바울의 일관된 신학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바울의 이러한 일관성은 상황성에 대처하는 바울의 신학적 틀과 경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관성의 틀 안에 있는 바울의 해결책들은 각각의 교회들을 넘어서서 바울의 신학을 위한 하나의 해석학적 모형을 제시한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여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일관된 신학적 전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자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여자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이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의 목적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적 일관성 속에 위치한 바울의 여자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신학적 전망 속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여자에 대한 이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제 1 절 바울서신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의 재해석

바울 서신에 있어서 몇몇 구절들은 그 특수한 상황성 때문에 잘못 이해되어지기 쉽고 또 그로 인하여 지난 2천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쓰여지게 되었다.

### 1. 고전 11:2-16

이 구절은 한국교회 중에서 여성의 사역을 반대하는 교단과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용하는 성경구절이다.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바울의 표현의 모호성과 그에 따른 잘못된 성경해석이 결국 사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의 제한 또는 금지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가.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이제까지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왔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여성이 머리에 모자나 수건을 쓰는 것이 참된 신앙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고린도교회 여성들의 형습은 당대의 문화적 패턴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8)</sup> 최근에 제임스 헐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는 대신 '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11장의 문제자체는 전혀 수건을 쓰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9)</sup>

고전 11장부터 14장까지 취급한 사항은 공중예배에서 취하여야 할 품위를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외모의 구별을 단정히 하고 공중예배에서의 지켜야 할 품위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후 1세기 동안의 유대인의 남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를 싸매지 아니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으며,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리의 여자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보다 높은 헬라사람들의 제사의식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우지 않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0)</sup>

고린도교회의 새 신자들 가운데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들 중에는 모든 얽매이는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믿음에다 결부시켜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은 바울이 전에 수건 쓰는 일에 관해서 이미 교훈한 '유전'을 지키지 않고 비평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어떤 자유분방한 여자들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다"(16절상)는 바울의 진술에서 암시된다. 이들 여자들은 바울의 자유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예배시에 수건을 벗은 머리로 기도하고 예언하므로써 자신들의 자유로운 신분을 과시하려고 했을

28) C. K. Barrett, 고린도전서, 국제성서주석, 한국 신학 연구소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5), 290.

29) James B. Hurley, Man and Women in Biblical Perspective (Zondervan: Grand Rapids, 1981), 162.

30) Don Williams, The Apostle Paul and Woman in the Church (Los Angeles: BIM Publishing Co., 1977), 64.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회적인 상황을 참작해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주후 1세기 동안의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고, 타락한 도시로서 주신(酒神)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한 자유를 시행하는 교인들을 볼 때, 저들의 옛 생활을 알고 있던 고린도의 옛 사제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고린도 지방이나 에베소 지방에서의 이교 문화권 속에서 정숙한 여인들의 관습이 있었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은 교회의 일원이 된 여자들이라 해서 당장에 벗어버린다면 저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즉 교회의 성결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동양 사회에서 여자들의 수건은 뼈대있는 집안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자에게 수건을 쓰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차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여성 자체를 열등하게 보아서 수건을 쓰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마치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기에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나.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에 대하여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전 11:3) 이 말로 인하여 남자는 여자 위에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다.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을 권위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인 남자에게 여자들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해석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고전 11:3에 바울이 '머리'라고 말할 때 쓰여진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 으뜸'이거나 '위에 것' '상전'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삼위일체인 하나님에 대한 모순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보다 하위나 종속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것은 바울시대에 일상으로 사용했던 헬라어 'kephale'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은유적으로 '강의 원천'이나 '근본' 또는 '때의 시작'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었다.<sup>31)</sup> 키텔은 이 '머리'란 말을 존재론적인 의미로서 한 인간이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하였다.<sup>32)</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머리'란 말은 '남성지배'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 받았다는 말에 대하여

바울은 창 2장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남자의 영광' 혹은 '남자의 현시'라고 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재료(source)로 삼아서 여자를 지었기에 여자는 남자들 편에서는 '영광'이란 것이다. 더욱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논리적으로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는 흙에서 재료를 삼았다면 여자는 남자의 뼈를 재료로 삼았다는 말이 주된 의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상위라고 한다면 흙은 남자의 상위란 말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흙에서 온 존재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흙에서 남자를 지었거나 그 흙에서 지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거나, 그 원천은 모두 동일한 흙인 것이다.

고전 11:8-9은 보다 명백하게 7절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 전체에 대한 논리는 매우 애매하다. 즉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 왜 그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야 하는가? 또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남자에 대한 불명예의 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없다. 더욱이 고전 11:10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천사들로 인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

31)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76), 967.

32) G. Kittel & G.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Vol. III, 1965), 679.

고전 11:10, 12을 볼 때 바울의 본래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온다. 그는 창 2장의 해석에서 자신도 너무 전통적인 해석으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1-12).

남성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중심 사랑인 이러한 구절은 아예 접어놓고 전반부의 다른 구절들만 인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문맥상으로 보아서 설사 첫 부분에서는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사회의 관습대로 교회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질서를 말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의 강조하는 결론 부분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랬어도 지금부터 주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다. 참 자유가 지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종말론적 신앙공동체(교회)안에서는 이제 남자나 여자가 타락한 후 형벌로 주어졌던 질서로서의 종속적인 역할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다. 즉 더 이상 타락한 후 나타난 종속적인 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사랑의 법’(새 계약), 본래 에덴동산에서의 지위와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2. 고전 14:33-36

이 구절을 현재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문대로 보면 우리말 성경의 34절 첫 부분인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33절에 연결시켜야 한다. 즉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고 해야 바른 해석이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읽는다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위 구절은 14장에 계속되는 ‘공중예배의 질서’에 관한 교훈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위 구절은 고전 11:2-16에서 바울이 한 말과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전 11:2-16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는 금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자들 중에는 34-35절은 딤후 2:11-12에 근거하여 삽입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바울 자신에



의한 난외주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두 구절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상대한 것이었다면 14장에서는 많이 모이는 회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33)</sup>

한편 조지 블럼(George Blum)같은 이는 이 구절이 모두 바울 자신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고전 14장 전장이 모두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선물의 질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33절 하반절부터 36절은 이 질서의 일부를 말한 것이고, 또한 공중예배 중에서 방언을 말하는 여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서 그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 문화적 관습의 차이나 모순이 없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하나의 공동체 형식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율법(창 3:16)에 남편이 여자를 주관하리라 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 견해는 교외의 품위와 건덕상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침묵을 권면했다는 배렛(Barrett)의 견해와 일치한다.<sup>34)</sup>

블럼은 “여자는 잠잠하라”는 명령을 이유와 동기로 구분하여 생각한다. 고린도교회의 여자들의 배경에는 남녀평등 원리를 위한 투쟁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영지주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것으로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바로 이 나쁜 습관을 대항하려는 태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바울은 사실 영지사상의 남녀동등권에 대하여 대항하였고 또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창세기의 남녀동등권도 거절하였다. 비로 이러한 거절이 위 구절에서 나타났다고 블럼은 주장한다.<sup>35)</sup>

### 3. 그밖에 문제되는 구절들

여성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구절들은 엡 5:21-23, 딤후 2:8-15, 5:5-16, 딤후 2:3-5 등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적어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기록보다 모두 후기에 기록된 것들이다.

딤후 2:8-15은 고전 14:34-35과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으나 그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디모데가 살았던 에베소는 거대한 이방의 다이아나 사원이 있는 곳으로서 교

33) George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Vol. 10, 1943), 231.

34) C. K. Barrett, 고린도전서, 381.

35) George Gunter Blum, "The Office of Women in the NT," The Churchman, A Quarterly Journal of Anglican Theology (Berkshire, U.K.: Sutton Courtenay, Vol. 85, No. 3, Autumn, 1971), 180.

회 안의 신앙의 토대가 약한 어떤 여자들 중에는 저들의 신앙의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들 가운데는 집사의 직과 교회직원 된 과부들도 있었지만, 누구의 말도 경청하지 않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딤후 3:6-7)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망령된 평론을 하는(딤후 5:13)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젊은 과부들에게 고린도에서는 결혼을 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고전 7:40) 여기서는(딤후 5:14) 결혼을 권장한 것만 보아도 그 상황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딤후 2:11-12에 나오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는 것은 고전 14:34-35에서 “조용하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조용하라”는 것은 규범없이 떠드는 말들을 그치라는 것이고, 보다 고상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권하는 의미이다. 그것이 곧 딤후 2:2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데 근거한다.

또 12절에 “가르친다”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여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특별한 성령의 선물로서의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자는 그릇된 거짓 가르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벌써 디모데의 교구에서 교리의 오해자들이 생기고(딤후 3:6-7)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딤후 5:15) 주는 교훈이었다.

또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서 남자란 남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이란 헬라어 동사 ‘authentein’은 신약 가운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이 ‘authentein’은 ‘가로막다’ 또는 ‘뽑내다’등의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명사로 사용될 때 ‘자살’ 혹은 ‘존속 살인자’의 뜻으로 상용되기도 했다. 이것이 후에 ‘주’ 혹은 ‘전제군주’로 되었는데<sup>36)</sup> 주후 1세기 동안에 이 말은 속어로서 자살, 즉 자살은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령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의적’, 혹은 ‘멋대로’의 간섭을 뜻하는 말로 되었다.<sup>37)</sup>

이렇게 볼 때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부부의 역할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함

36) Lenski, 디모데전후서, 89.

37) Letha Seanzoni & Nancy Hardesty, All We're Meant To Be (Texas: Word Books, Publisher Waco, 1974), 71.

이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일반적인 원리로 기술한 말이라기 보다 하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 말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려는 바울의 근본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인 어구에 얽매어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본 뜻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현실 교회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글들이 다 가정주부들에게 주는 당시 사회의 윤리적 교훈이었다. 이것들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 생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교회 밖의 세상적 윤리가 교회를 위하여 인용된 것뿐이다. 이 구절들은 이단과 박해에 직면한 초대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온전하고 질서있게 서있기 위하여 당연히 쓰여졌던 말들이다.

#### 4. 기독교의 자유현장

갈 3:27-28은 기독교의 자유 현장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안에서의 모든 자들이 일체이며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다.<sup>38)</sup> 특히 이 본문은 바울서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석학적으로 우선성을 갖는 규범적인 원리이다. 남녀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외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울의 여타 모든 선언들을 모두 이 규범적 원리를 통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차별의 차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 결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거나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데에는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남녀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38) 안상남, 여성 신학 이야기, 295.

## 제 2 절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여성에 관한 바울의 견해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는 그의 여성 동역자들에게서 나타난다. 롬 16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안부를 할 때 28명 중 여성이 10명이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비록 개혁성경에서는 그들의 남녀 구분이 분명치 않지만 그들 중 10명은 여성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여성 이름으로 확인된 이름 10명의 여성 동역자를 나열하면서 겐그레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뵈뵈를 언급하고 있다. 뵈뵈는 그리이스 성경에 'he diakonos'라고 되어 있다. 이는 뵈뵈가 여집사이었음을 나타내는데 여집사 제도는 4세기경의 시리아 문서의 사도 헌장에도 등장한다.<sup>39)</sup> 또한 그녀에 대해 '많은 사람을 도와 주었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한다(롬 16:2).

예수를 위해 함께 일한 브리스길라,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고, 바울 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롬 16:3-4). 브리스길라는 소아시아의 모든 이방 교회가 고마워할 만큼 많은 일을 한 동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밖에 수고를 많이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힌 일이 있는 유나아(유나아는 특히 사도라는 호칭까지 받는다), 주님을 위해 애쓴 드리패냐와 드리포사, 주님을 위해 특별히 구고한 사랑하는 베르시스, 주의 일군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누이 등 이상의 10명의 여성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빌 4:3에서는 "나와 한 명에를 멘 유오다아, 신다케"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 여자들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 1.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롬 16:1-2)

#### 가. 'he diakonos' 칭호

바울의 뵈뵈에 대한 공식 추천장에서 뵈뵈는 'he diakonos'라는 존칭으로 소개되고 2절에서는 지도자 (혹은 후원자)라는 칭호까지 받는다. 당시의 추천장은 어떤 공동

39) Leonard Swidler, Biblical Affirmations of Women, 309.

체나 개인 앞으로 보내졌는데 이것을 받으면 다시 다른 공동체나 개인에게 문안을 전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뵈뵈는 수많은 초대 교인들에게 오늘의 여성 목회자와 같은 지위로 추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바울이 자신의 평판을 뵈뵈의 손에 맡길만큼 뵈뵈를 자신과 동등한 교역자로 신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뵈뵈는 바울서신 중 공식적인 추천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크리스찬 선교에서 뵈뵈의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바울이 ‘디아스코스’라는 칭호를 자신이나 다른 남성 지도자에게 사용할 때마다 주석가들은 ‘목사’나 ‘집사’로 번역하지만 뵈뵈의 경우에는 ‘여종’이나 ‘여집사’로 번역한다. 여기서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성서 언어와 그 번역의 문제가 ‘여 목사 뵈뵈의 상’을 은폐시키고 ‘봉사하는 여종 상’만을 인식시켜 왔다는 것이다.

케제만(E. Käsemann)은 ‘디아스코스’라는 말이 뵈뵈에게 호칭된 것과 빌 1:1에서 쓰여진 것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의미하는가 라는 논쟁은 문제 설정부터가 바울의 의도를 잘못 본 것이라 말한다. 바울에게서 직분은 주로부터 공적으로 특수한 직무를 위탁받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회의 일이므로 만일 뵈뵈가 인정받은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명(겐그리아)에서 보듯이 적어도 후대에 가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구절은 사변적인 고찰을 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일축해 버린다.

반면에 여성신학자인 쇼트로프(L. Schottroff)는 여성에게 직분을 뜻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생명과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일한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남자들이 한 것과 분명히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sup>40)</sup>

쇼트로프의 격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뵈뵈의 직분은 후대의 제한된 여성들만의 ‘여집사’가 아니라 전 교회의 사역자이다. 왜냐하면 뵈뵈가 받은 ‘디아스코스’라는 칭호는 빌 1:1에서의 디아스코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뵈뵈에게 준 그 동일한 호칭을 그 자신과 아볼로에게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뵈뵈가 받은 ‘디아스코스’ 호칭은 교회의 직분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 공동체에서는 직분을 받는 데에 남녀가 평등했음을 알 수 있다.

40) 남명희,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184.

### 나. 'prostatis' 칭호

뵈뵈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공식칭호는 'prostatis' 즉, '지도자'라는 칭호이다.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 문헌에서는 주도적 관리, 법사, 우두머리, 지휘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보통 봉사자, 여성후원자로서 번역된다. 바울은 원문에서 뵈뵈가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지도자'였다고 말한다.

'프로스타시스'라는 말의 동사형이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특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말의 동사형은 감독, 집사, 장로들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에 반대하여 최근의 남성 주석가들은 이 칭호의 지도자적 의미를 거부한다. 즉, 뵈뵈에게 주어진 이 '지도자'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볼 때 남성형의 법적 의미인,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세기 말 티아디라 교회의 한 여인은 예언자 집단의 우두머리로 교회내에서 지도자적 권한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계 2:20).<sup>41)</sup> 그러므로 뵈뵈는 많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발휘하고 목사의 존칭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선교활동을 한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2. 부부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롬 16:5, 고전 16:19)

### 가. 가정교회를 세운 부부

초기 기독교 선교운동에서 최초의 교회가 형성될 때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초기모임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는 로마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전 16:19에서 다시 언급될 만큼 가장 활동적인 가정교회였다. 바울이 공동체의 유성에 관해 웅변적으로 설교하며 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옮겨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의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자신들의 선교활동비를 자신들의 노동으로 충당하였다.

41) 남명희,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185-186.

브리스길라는 바나바와 아볼로처럼 바울과 동역자 관계였으나 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신의 동역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할 정도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모든 이방교회도 감사해야 한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이들 부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지도적인 초기 기독교 선교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는 별도로 이미 그들의 선교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클라우디스 황제가 내린 유대인에 대한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로 옮겨왔고 그곳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을 만났다. 그러나 당시 부도덕한 종교행위가 성행하는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은장ীদের 난동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들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러한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기 위해 세 번이나 자기 소유물을 팔고 자리잡은 사업장을 떠났다.

#### 나. 교사였던 브리스길라(행 18:26)

브리스길라가 선교활동 중 사용한 또 하나의 은사는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당시 여성들이 딸들을 가르쳤던 가정적인 의무같은 것이 아니었다. 브리스길라는 1세기의 남성들에게 성서를 재해석 해 준 여성이었다.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명한 선교사 아볼로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것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다. 또한 그녀는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에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아볼로는 이들 부부를 만난 후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를 깨닫고 아카이아 회중들에게 갔을 때 성서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행 18:26에서 브리스길라를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그의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어떤 것을 시사한다.

#### 다. 부부공동목회의 모범

이 부부의 이름은 앞뒤는 바깥지언정 한번도 따로따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고, 여행도 같이 했으며 또한 같이 사는 집도 교회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주의 일에 적극 동참했다. 심지어는 이 부부가 자기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교회에 문안인사를 보내는 경우에도 같이 이름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선교는 예수 운동에서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지 부부관계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한 부부로서 브리스길라 쪽이 좀더 중요한 책임을 맡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전한 동역자 관계였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당시 가부장권 내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된 역할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주 안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필히 부부목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부부목회에서 사역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바울을 보았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성은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비성서적이며, 교회는 부부목회와 부부선교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할 줄 안다.

#### 3. 탁월한 사도로 불리운 유니아(롬 16:7)

유니아와 그녀의 남편 안드로니고는 그들의 비유대교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유대 기독교의 부부선교사이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교회에서 선교한 것과 달리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사업에 종사한 순회하는 선교사 부부이다.

순회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들은 특수한 기동성과 후원으로 인해 초대교회 선교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여성들은 이 두 영역에서 지도자들이었다.

남성 신학자들은 이들 부부가 사도 호칭을 받은 것은 바울 당시의 거짓사도들처럼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유니아의 사도직을 약화시켰다. 하지



만 바울은 사도의 기준은 부활의 목격자이며 부활하신 주에 의해서 선교를 위임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사도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에게서 참된 사도직의 표식은 유창한 언변과 영적 계시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업과 연관된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함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말한 참된 사도직의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바울 이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바울과 함께 일했고 바울과 함께 투옥 당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여성사도 유니아는 ‘탁월한’(episeimon) 사도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이다.

여성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성 위주의 전통적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성경 전체의 사상이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의 바울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학적 명제가 남녀를 더 이상 차별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새 질서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질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갈 3:27-28이 이러한 바울의 견해를 신학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면 바울의 서신들에서 언급된 여성들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바울의 일관된 견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서 여성들을 언급할 때 이들이 자신에게 ‘종속되거나’ 혹은 단순한 ‘조력’들로 표현하질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은 바울 이전에 또 바울과는 독립적으로 선교와 지도권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중 몇몇을 ‘동지 스리스가’ ‘목사 뵤뵤’ ‘사도 유니아’로 특별 존칭으로 예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서 평등했고 때로는 우월하기조차 했다.

이는 기독교 사역이 남성의 전유물이나 남성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제 5 장

## 한국 교회사에서 본 여성 사역

한국교회사 속에서 여성들은 명실공히 교회의 어머니로서, 산파로서, 민족의 어머니로써 교회를 키우고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선교 초기에서 일제 말기까지는 복음 전도자로서, 여성인간화를 위한 선구자로서, 민족의 어머니로서 항일전선에 몸을 던지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다. 해방 후에는 민족 분열의 상처와 남성지도자들이 빚은 교회분열의 상처를 온몸으로 싸매며 교회를 재건하고 선교의 역군으로서 묵묵히 일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에는 이 민족의 시대적 요청인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였다. 80년대에는 드보라와 에스더 같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통일과 세계 평화를 대망하며 교회의 일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일했다. 90년대를 지내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향해 더욱 전진하고 있다.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했다.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한국교회의 성장 뒤에는 여성의 헌신적 조력이 있었으며 민족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난에 동참한 교회 어머니들의 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성들의 활동이 은폐되고 망각되어 온 채 이 여성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변세력으로 떨어져있다.

본 장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세계의 복음화에 여성으로서 혁혁한 공헌을 한 대표적인 여성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한국사회와 교계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안수 문제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여성의 잠재력을 인식케 하고 능력 개발에 눈을 뜨게 하면 남성들로만 진해되었던 세계 복음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앞장설 것을 믿기 때문이다.

## 제 1 절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한국 사회는 반만년 즉 5천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낙후한 국가와 민족이었으나 1866년 9월 3일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목사의 대동강에서의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기독교(개신교)의 예명을 맞게 되었고 1884년 9월 14일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 등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를 효시한 선교사들의 기독교 전래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발전되어왔다.

1945년 8월15일 항방을 맞은 기독교는 구국의 전초에서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갈 길을 비쳐 주었다. 한국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를 재현하고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의 대의 정치로부터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기량과 정신적 가치 개발을 자랑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매우 두드러졌는데 특히 아래 네 명의 여성들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대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 1.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감리교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

1886년 미국 감리교 본부는 의사 엘러스양을 파송하여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부녀계 사업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엘러스양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왕비와 궁중 귀부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엘러스양이 오자 곧 왕비의 신임을 받고 친근하게 되었다. 국립 병원 안에는 엘러스양을 책임자로 하여 부녀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에서 최초의 의료선교와 여성 개화가 시작되었다.<sup>42)</sup>

### 2. 독립 운동가 류관순(1904-1920)

류관순은 여선교사 앨리스 샤프(Alice H. Sharp)의 눈에 띄어 서울 이화 학당에 진학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고 순교함으로 기독교인 독립 운동가, 순국 처녀로 존경되고 1962년 정부는 그녀에게 건국 공로 단장을 추서했다.<sup>43)</sup>

42)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125-126.

43) 두산동아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vol.20 (서울: 두산동아, 1996), 338.

### 3. 교육가 김활란(1899-1970)

본명은 김기득으로 1899년 2월 27일 아버지 김진연과 어머니 박포라의 2남6여 중 딸로는 다섯째, 형제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태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으로 헬렌을 받았으나 아버지는 헬렌을 '활란'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sup>44)</sup>

1818년 이화 학당을 졸업, 이후 모교에서 후진 양성에 일생을 헌신하였던 김활란은 1920년대에 '7인전도대'를 조직하여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여성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기 시작하였다.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를 넣은 단기를 앞세우고 전도활동을 시작한 7인 전도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운동이었으며, 애국 신앙운동이었다.<sup>45)</sup>

그녀는 또한 1922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학생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그해 김필레, 유각경 여사와 함께 YWCA를 창설하고 1928년 국제 선교 협의회(I.M.C.)에서 일본 대표인 우자끼와 논쟁을 벌려, 한국 여인의 기상으로 독일 대표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 4. 법률가 이태영(1914-1999)

1914년 8월 10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강인하고 부지런한 모범속에서 성장을 했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54년에 한국 여성 문제 연구회 이사, 대한 어머니회 이사, 동구 여상 이사 등에 선임되었고 6.25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6년 8월, 오랜 숙원이던 '여성법률상담소'를 발족하여 소장으로 취임했다. 후에 이 여성법률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였다. 가정법률 상담소를 통해 두드러진 사건은 모두가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들이었다.<sup>46)</sup>

1957년 서울 대학교에서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꿈꾸기 힘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후 1969년에 법학 박사 학위 취득했으며 1958년에는 세계 여류 법률가 협회 부회장으로 지명되었다. 또한 1968년 제12차 세계 변호사 회의에 참석한 것을 필두로 법률, 기독교 관계 국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수 십 차례 참가하였다.

44)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8), 358.

45)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인물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5), 155.

46) Ibid., 185.

1975년에는 영광스러운 제18회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그녀는 성직자이며 저명한 정치인 정일형 목사의 부인으로 착실한 내조를 하였고 일생을 통한 돈독한 신앙은 사회와 교회 봉사의 일념을 실천한 원동력이 되었다.

## 제 2 절 한국 교회 성장과 여성의 역할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의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직면하여 쇄국 정책으로 왕권을 수호하고 양반 중심의 신분 사회를 유지하려는 이조 정권이 유교적 이념을 절대화 시켜서 농민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또한 엄격한 가부장 제도와 부패한 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는 등의 고난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녀자들은 이제 새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복음이 드디어 한국 땅에 전파되었고 이 기독교 복음은 천민과 여성들에게 평등을 고취하는 개화 사상으로 파급되어 여성의 인권과 남녀 동등의 성경 진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복음을 통한 개화이후 한국 교회의 여성들은 신앙의 단순성과 정신적 구상의 민첩성, 종교적 경험과 신앙의 열정에 있어서는 남성을 앞서는 열정을 보여왔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신도수 비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배나 상회사실이 그것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sup>47)</sup>

교회 성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여전도사의 역할이며, 둘째는 여선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도들의 역할이다.

### 1. 여전도사의 역할

선교 초기에 여교역자는 한국 개화의 기수로서 한국 사회를 앞장서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47) 이영숙, "1957-84 여성 중심으로 사회 변동 연구," 기독교 사상, 1991년 5월호, 125-126.

### 가. 여전도회 창립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는 여신도 이신행, 신반석, 박관선, 김선신 씨 등 4명의 발기로 여전도회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매 주일 엽전 한푼씩 모으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평양 근교 순양지방에 보내어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모은 헌금은 평양 장대현 교회 건축을 위해 바쳤다. 이에 자극을 받은 남 신도들은 1900년 선천 교회에서 사경회가 모였을 때 첫 전도회를 창설했다.<sup>48)</sup>

### 나. 여전도사 양성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었고 5년 후인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 성경학교가 설립되었고, 1917년에는 서울 서대문에 새 교사를 마련하여 '협성 여자 신학교'로 승격시켰고 여전도사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한국 복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sup>49)</sup>

### 다. 여성 사경회

여성들만을 위한 여 사경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사경회의 여성 반에서는 전도 부인 양성을 위한 성경공부, 미신 타파, 한글 계몽, 생활 개선에 관한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성 개화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여성 생활의 개혁에 임했다.<sup>50)</sup>

### 라. 여성의 사역 참여

사경회 성경 반을 이수한 여신도들은 주일학교 교사, 주간 학교 교사, 또는 사회 봉사자로 크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sup>51)</sup>

48) 이기문 편저, 기독교대백과사전, vol.11 (서울: 기독교문사, 1984), 446.

49) 전봉중 편저, 교회사 대사전, vol.3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4), 578.

50) 이기문 편저, ibid., 11:445.

51) Ibid., 11:446.

## 2. 여집사들의 여선교회 활성화

### 가. 장로교회 선교사 공의회

1893에 조직된 '장로교회 선교사 공의회'는 전도의 대상을 상류계급 보다 서민층을 삼을 것, 부녀자 전도와 여성 교육에 주력 할 것, 한국인 스스로 동족에게 전도하는 자립 전도의 훈련을 강화 할 것, 그리고 의료 선교사는 치료와 함께 반드시 기독교 진리의 전도를 병행 할 것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sup>52)</sup>

### 나. 여선교회의 활성화

최초의 여전도회가 조직된 이후 교회의 어렵고 힘든 일은 대부분 여선교회가 도맡아 했다. 교회를 청소 또는 미화하는 일, 관혼상제나 구제하는 일, 심방과 남, 녀 교역자를 섬기는 일 등 모두가 여선교회의 일로 돌려졌다.

### 다. 전국 여전도회

1945년 해방이 되고 이듬해인 1946년 6월 제 14회 전국 여전도회 총회를 열고 회장에 신애균, 총무에 김성무를 선출하여 여전도회의 전국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sup>53)</sup>

### 라. 여교역자의 순교

6.25 동란을 통해 순교한 여교역자로 김경순 전도사, 김순호 전도사, 백인순 전도사, 장수은 전도사 등이 공산당에게 연행되어 함께 순교함으로 여교역자도 신앙을 위한 순교의 단열에 들게 되었다.<sup>54)</sup>

### 마. 여선교사 파송

장로회전국 여전도연합회는 창립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뜻을 굳혔다. 1930년대까지 대부분의 중국 여성들이 축족이 되어 살고 있었는데 남자들의 횡포를 참아온 한국 여성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52) 전봉중 편저, 교회사 대사전, 2:103.

53) 이기문 편저, 기독교대백과사전, 11:446.

54) 이화여자대학교 편, 한국여성사, vol.2 (서울: 이화출판부, 1972), 176.

그들에게 대한 연민을 느끼고 중국 본토에 선교사를 보내어 중국 여성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다.<sup>55)</sup>

1956년 예수교 장로회 여선교회에서 최찬영, 김순일 두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했고 1960년 3월에는 정성원 권사가 개인적으로 대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대북 고웅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기도 하였다. 정성원 전도사는 대만 교포의 어머니, 사랑의 사자로 불려지며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sup>56)</sup>

또한 1959년 국제 기독교 총회에 참석했던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는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에 조성자, 전재옥, 김은자 3명이 선발되어 1961년 10월 31일 처녀 선교사로서 사도적 역사를 실행하게 되었다.<sup>57)</sup>

### 3. 여성 신도들의 활동

관서 지방의 부인들 중 강서의 권삼덕 부인, 선현의 김기만 부인 등은 그 지방의 최초의 세례교인이자 강서의 감리교회, 선현의 장로 교회를 세운 개척적 여신도들이다. 이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물심 양면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모든 박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교회당을 세우며 전도에 힘써 지역 교회를 시작하여 성장 발전시키는데 피와 땀을 흘린 부인들이다. 이러한 부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국 교회는 부인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고 발전했던 것이다.<sup>58)</sup>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신도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그 지방을 순회하는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에 의해 1887년에 세례를 받은 백홍순 전도사의 부인 한씨와 이성하 전도사의 부인 김씨였다. 1897년 스피어(Rev. Speer)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관서 지방 교회의 발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당들은 초만원에 이르렀고 확장의 기회는 무제한 적이었다는 것이다.<sup>59)</sup>

한국 여성 신도들의 고달프고 절박한 삶 속에서도 새로운 신앙의 힘을 갈구하는 단순한 정열과 애절함이 망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55)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 187.

56) 이기문 편저, 기독교대백과사전, 11:447.

57) Ibid., 448.

58) 이연옥, 교회 여성 지도자 (서울: 쿤란 출판사, 1993), 25.

59) Ibid., 26.



주었다. 여신도들의 이 신앙은 190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자겨오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 제 3 절 한국 교회와 여성 안수

여성의 사역 참여는 날로 확대되어 갔으며 결국 사회적 전통을 극복하려는 목사 안수 논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1928년 제 17회 총회 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고 1933년 제22회 총회에서는 함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연합회장 최영혜씨 외 300명이 연서로 여성 장로 허락을 청원하였다.<sup>60)</sup>

그 이후 여성 안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6월 20일에 여성 안수 연구 보고서가 작성되어 다음과 같은 찬, 반의 내용의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sup>61)</sup>

#### 1.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하여

##### 가. 찬성측의 주장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웠다. 본교단과 자매 교단인 미국 장로교(PCUSA)나 W.C.C.와 N.C.C.가입 교단이 모두 여성 안수를 허락하였으니 본교단도 허락하여 교단 상호간의 활동과 유대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본 교단에서 여목사 안수를 허락함으로써 젊은 일꾼들에게 장래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인재와 일꾼을 포섭하는 길도 된다고 사려되며 인권 문제에서 나온 것인 만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 나. 반대측의 주장

찬성측에 대한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6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회의록 17회(1928), 제22회(1933) (미발행).

6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여성안수 연구 보고서 (미발행, 1991. 6. 2).

부부 두 사람 다 목사가 되어 교회에 부임하면 교회가 재정2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목사직은 장로와 같이 무보수의 봉사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실무직임으로 사례를 하여야 하고 사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처럼 부부가 다 목사일 경우 한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때 남편 목사와 부인 목사가 각각 다른 교회를 시무하게 되고 또 각기 다른 교회를 목회 하게 될 때에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 남편은 평신도이고 부인이 목사인 경우 한국인의 문화로서는 이것을 수용할 만큼 의식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성이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생리적 문제와 기능적 문제는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신하여 출산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성은 치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며 독신녀로서 목사안수를 못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수를 받고 목사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만 하겠다.

## 2. 여성 장로 장립에 대하여

여성의 안수 문제는 목사직에 국한되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여성이 교회 전체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장로 장립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 가. 찬성측의 주장

대체로 여성은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서 장로가 되어 당회원이 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 교회는 2/3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제라도 여장로가 꼭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 대회나 국내 교단 연합회에 참석하면 본 교단에는 여장로가 없기 때문에 늘 타 교단 보다 뒤떨어져 소외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

### 나. 반대측의 주장

타교단에서 여장로를 세운다고 해서 본 교단에서도 안수하자는 주장은 교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주장이다. PCUSA 장로는 향존직(평생직)이 아니라 기한제(Term)장로로 3년직이며 여장로의 허락은 치리와 행정에 혼란을 가지고 올 것

이다. 각 교회에서 현직 장로의 부인들이 대개 권사로 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권사들이 다 장로가 될 때에 한 집안에서 당회원이 두 사람 이상이 되고 치리회인 당회에 참석하게 되면 목사의 노고는 배가된다. 포괄적으로 여성의 성격이 조용하고 침착한 면이 있는 동시에 철저하고 까다로운 면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교회는 정치 단체나 세속적 조직이 아니다.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해도 다수결로 다스려 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측)의 제59회 총회에서는 여성 목사건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이 120표, 반대가 183표로 부결되었다(총투표 303표). 그러나 그 후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표가 증가하면서 제79회 총회(1994년)에서 찬성이 701표, 반대가 612표로 가결되게 되었다(총투표 1,321표).

초기 한국 교회는 행정 기구나 치리적 교권이 남성 위주로 되어 여자들이 소외되거나 여성의 지위를 차별화 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여성 권사들의 활동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한 여성 개화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여성의 지도 뿐 아니라 교회 부흥에 있어서 목사를 돕는 그들의 심방 활동은 신도들에게 큰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금 한국 교단에는 여성 목사가 1천명을 넘고 있다. 교단별로 목사 수를 보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 186명, 한국 기독교 장로회 95명,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75명,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보수 개혁 50명,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중앙 250명,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앙 320명이며 여기에 소규모 교단을 합치면 1천명이 넘는다.<sup>62)</sup> 이제 한국 개신교의 약 70퍼센트 정도를 이루는 여성 신도를 위한 여성 목사들의 역할 중요성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 제 4 절 한국 여성의 의식 변화

사회와 국가가 현대화됨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사회 참여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여성

62) 이광순, “여성목사에 대한 편견은 부당하다,” 크리스찬 헤럴드 (LA: 크리스찬 헤럴드, 1998, 8), 5.

이 가정과 생활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방관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임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과거와는 달리 의식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sup>63)</sup> 그 중에서도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여성 가정관, 결혼관, 생활관, 그리고 직업관을 들 수 있다.

## 1. 가정관

우리 한국 도시의 가정주부들은 대부분이 가정 일을 통해서 여자의 능력을 인정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딸은 장래 가정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있어 주부로서의 역할이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의식하고 있다.

이화여대 문숙재 교수가 1980년 서울 시내 가정주부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가정 주부로서의 위치가 그저 그렇다'가 57.1퍼센트, '아주 만족하다'가 31.8퍼센트, '아주 만족하지 않다'가 8.8퍼센트이었으나 70퍼센트 이상의 주부가 '가정을 꾸려 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64)</sup>

자녀에 관한 의식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농업 사회에서나 부계 사회 및 후진 사회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가문, 혈통의 상속, 노후의 생계 문제 등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기른다'는 의식으로 기울게 되었다. 희망 자녀수에 있어 얼마 전만 해도 2남1여 이었으나 70년대 후반에 1남1여로 변했고 80년대에는 하나도 좋다는 의식으로 바뀌었고 현대에는 무자가 상팔자라는 의식까지 생겨났다.<sup>65)</sup>

이러한 가정관과 자녀관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여성의 사역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 2. 결혼관

근대 사회 이전의 결혼은 성(性), 애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별로 없었다.

63) H. Rice, 여성 목회와 영적 지도, 최대형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59.

64) 이옥수, 한국 근세 여성 사회 (하) (서울: 규문각, 1985), 387.

65) 권성수, "성경적 가정질서관," 목회와 신학, 1993년 6월호, 40-42.

따라서 결혼 당사자 중심보다는 신분, 가문 등 문벌 중심의 결혼이어서 형식과 외형적 격식에 치중하였고 결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sup>66)</sup>

해방이후에는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하는'형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듣고 부모가 결정'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뒤에 부모의 승낙을 얻어 결정'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오늘날은 '나 자신을 위하여' 결혼한다는 경향이 대다수이며 '부모를 위해서' 또는 '풍습에 따라서 결혼한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배우자 선택에 있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고 학벌, 가문, 인품을 취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다. 부부의 이상형에 대해서도 친구와 같은 부부상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결혼 4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는 결혼 3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여성의 성서적 결혼관이 요구되고 건전한 가정 형성이 요청되고 있다.<sup>67)</sup>

### 3. 생활관 및 직업관

#### 가. 여성의 생활관

1998년 이정우 교수의 "한국 도시 여성의 가치관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은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선용에 대하여' 아이들을 돕는다가 25.5퍼센트, Radio, TV, 전축을 듣는다가 21.4퍼센트, 자기 개발을 위하여 독서를 한다가 15퍼센트, 휴식을 취한다가 14.4퍼센트로 역시 건전한 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생활 면을 보여 주었다.<sup>68)</sup>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림을 살다 보니 인생은 투쟁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등글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투쟁이다가 65퍼센트, 등글다로 보는 층이 23퍼센트였다. '처세 방법'에 있어서는 되는대로 사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하나? 정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정당한 것을 추구한다가 76퍼센트로

66) 이규호, 여성과 현대사회 (서울: 연세대 출판사, 1976), 56.

67) John Stott, 결혼과 이혼, 김원주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1), 8.

68) 이정우, 한국 도시 여성의 가치관 연구 (서울: 숙명여대출판부, 1998), 12.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급격한 생활관의 변화이다. 과거 여성들에게는 가정 생활에 얽매이면서 여가 선용이란게 없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고 밤이면 일에 지쳐 잠에 취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가도 있고, 경제도 넉넉하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향락을 도모하다가 탈선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기독교 여성은 이점에 착안하여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모색하고 교회와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 나. 여성의 직업관

과거의 여성은 가정관리 즉 아이를 낳아 기르며, 밥을 짓고, 세탁하며, 하루종일 가정사에 얽매어 가정에서 살림하며 여성의 지위를 가정의 주부로서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대부분이 직업에 종사하여 사회 참여와 경험을 희망한다.<sup>69)</sup> 그리고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의 적성에 알맞거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들의 직업관이 변하고 있다면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선교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독교 여성들의 사명을 한층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 4 여성의 잠재력

과거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 용어가 생겼다. 사회와 국가가 근대화됨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모든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사회 참여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여성이 가정과 생활 속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만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여성은 자신의 문제를 방관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은 남성이 갖지 못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sup>70)</sup> 현대목회는 여성에

69)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두란노서원, 1991), 29.

70) Ibid.

의한 목회라는 이론이 목회학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목회학의 이론에 따르면 세 명의 여성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사모를 잘 만나야 하고 둘째는, 여교역자를 잘 만나야 하고 셋째는, 여선교회장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를 1,500만 명이라고 할 때 그 2/3인 1천만 명이 여성이다. 이 가운데는 학자, 운동가, 법률가, 정치가, 교육가, 사회사업가, 신학자, 목회자, 현모양처 등이 있어 교회와 사회, 국가, 세계에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 여성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말하면 여성 신학자 협의회에 등록된 여성 신학자의 수가 200명을 넘고 있다.<sup>71)</sup>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직업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여 더 이상 여성의 불모지가 없어졌다. 남전도 회관은 없어도 여선교 연합회관은 있다.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도 여성 신학 성서 교재, 연합회보 발간, 기독교 여성 100년사, 인물사 등 수 많은 사업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

분명히 모든 여성에게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커지면 세계를 움이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 영향력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여성에게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극히 제한하였던 유교적 전통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복음을 접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한국 교회사와 교회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남성을 앞서기도 하였고 교회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여성의 역할의 확대는 급기야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장로와 목사직을 여성에게도 개방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이 지니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 이제 교회가 이러한 여성들의 잠재력을 복음 사역에 투자한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선교는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71) 김호식, "한국교회와 여성신도," 월간목회, 1984년 7월호, 24.

## 제 6 장

##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여성의 의료선교사역

전장에서 서슬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는 여성의 사역을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나 세계화와 발맞추어 시작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사역의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넣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 여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남성에게 맡기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역의 전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역의 주역으로 서서히 자리 매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는 선교 분야이다. 오늘날 세계 선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여성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세계 복음화라는 미완성의 거대한 과업은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72)</sup> 이제 여성은 아마존의 깊은 정글 속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아시아의 슬럼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선교지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인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약 65 퍼센트가 여성이란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sup>73)</sup>

여성의 선교 참여는 항상 선교지의 최전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세계의 이민자들이 한곳에 모여 살고 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먼 타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실감한다.

72) 강성필, “한국교회 여성선교사의 실태와 문제점,” 미션월드 (서울: 아세아선교회, 1999, 4-5), 24.

73) 한경철, “여성 선교사의 필요성과 역할,” 미션월드 (서울: 아세아선교회, 1999, 4-5), 24.



미국 이민자로서의 한국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곳 지역사회 선교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결인들을 위한 급식의 공급 및 배급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미용, 위생, 상담, 직업알선, 사회봉사,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교적 사역들이 교회나 종교기관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는 개인 및 사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부분 사적인 기관이 중심이 된 선교는 재정이나 인적 자원의 동원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복음의 피 대상자들이 거부감 없이 접근하게 됨으로 복음전파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호산나 의료 진료소(Hosanna Medical Clinic)의 의료선교센터(HMMC)는 선교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다양한 인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여러 민족 및 종족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이다. 이곳에서는 설립자인 박호성 박사를 중심으로 치료, 상담, 단기선교, 그리고 의료선교사 훈련 등 다양한 선교활동이 전개되어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의료선교 사역과 관련된 몇몇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호산나 의료선교센터의 의료선교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 제 1 절 의료선교

호산나 의료선교센터에는 의사인 남편과 본인을 포함한 모든 전임 간호사역자들이 기독교인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와 간호원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간호와 치료가 시작된다. 또한 환자의 영적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한 영적 필요를 찾아내고 그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기가 신체적, 지능적 발육상태에서 웃기 시작하고, 걷고,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와 자기환경을 느끼면서 점차 독립된 생활을 배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개척하며, 남을 용서하며, 참 기쁨, 참 행복의 삶을 살며 자녀들에게 전수해

야할 전환점 기로에서 있는 어머니의 책임은 더 막중해진다. 각 개인마다 귀한 존재이다. 각 사람들을 볼 때 새삼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인체에 신비감이 더해지고, 감사함이 더해진다. 우리의 완벽한 신체를 아무대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다. 보라! 우리가 가만있어도 심장은 절로 끊임없이 박동하며 혈액순환을 시키고 폐의 기능으로 호흡할 수 있다. 우리 신체 하나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린다. 여하간 우리는 큰 행운을 받은 사람들이다.

수술을 받을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며 마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하면 신, 불신을 막론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다. 수술 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면 환자에게 부과해 주는 마취와 수술 외에 또 채워 주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수술 후 회복기가 되면 지속적인 기도와 신앙 서적과 성경을 읽게 함으로 그들의 영적 자각을 일깨운다. 그리고 영적 요구가 자기 속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채워 주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 1. 의료선교의 목적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좋은 의사는 예수님이였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을 간추려 보면 가르침(teaching), 설교(preaching) 그리고 치유(healing)의 3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마 4:23). 예수의 능력으로 열병도, 눈 먼 자도, 절름발이도, 귀머거리도, 중풍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혈루병 앓는 여자도, 문둥병자도, 귀신들린 자도 능히 낫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아이로의 딸도 살리셨다.<sup>74)</sup>

김세윤박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역을 사탄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그러기에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낸 제자들의 사역에서 예수는 사탄이 왕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귀신 쫓아냄과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힘의 시위이며

74)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4), 500.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해이며, 그것의 실현(actualization)이었다.<sup>75)</sup>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자나, 살아난 자는 모두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얻고 죽음에서의 완전한 해방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인간을 치유함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죽음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인 치유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의사의 최대 목표는 전인 치유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사가 그리스도인이면 의사로서의 최대 목표인 전인 치유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복음을 전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제자 훈련을 실시하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든, 모든 선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증거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없는 모든 행위는 선교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증거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 선교의 목적은 의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다.

## 2. 의료선교와 전도

의료선교와 전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전도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둘째, 그분은 전파하며 치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

75)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50.

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7~8).

예수님은 치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분이 치료하실 때에는 언제나 환자나 환자 친구들에게 그 사람과 예수님 자신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치료한다는 것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분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셨다. 치유를 영혼구원 즉, 전도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매번 치료하실 때마다 서로 다른 이유를 보여 주셨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했던지 치유 사역은 그 분의 전체 사역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영혼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

### 3. 의료사역과 영적사역

의사, 간호사, 약사 혹은 보건원 등 누구이든지 우리가 실시하는 병원 선교 사역의 최종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복음 전도란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사역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가 이다. 이것은 의료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사역 90퍼센트, 전도사역 10퍼센트인지, 혹은 의료사역 50퍼센트, 전도사역 50퍼센트여야 하는지, 의료사역 70퍼센트, 전도사역 30퍼센트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료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100퍼센트여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사역에 95퍼센트를 할애하고 전도를 5퍼센트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의료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선교사는 양자를 위해 100퍼센트의 헌신을 해야 하며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 4. 현대 의학과 신유

치유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중 중요한 사역이었다. 복음서의 거의 1/5

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그것과 관련된 토론으로 되어 있다. 복음서 3,779절 중 727절이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다.<sup>76)</sup> 이처럼 치유 사역은 복음 중심에 놓여있는 사역이다.

#### 가. 현대 의학과 신유와의 관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성행했던 믿음을 통한 치유사역, 즉 신유와 현대 의학과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유는 현대 의학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베이커의 신학사전에서 신유는 “정상적인 현대 의학의 예상과 반대로 일어나며, 특별한 영적 선물로 이루어진 치유를 설명하는 단어이다”고 설명되어 있다.<sup>77)</sup> 신유와 현대의학이 그 특성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아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면 의료사역을 통해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먼저 현대의학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을 거부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신유만을 강조한다면 현대의학을 거부하던지, 또는 믿음을 근거로 한 치유에만 의존하다가 병이 낫지 않고 그것이 현대의학으로 치유될 때는 하나님은 실패자로 간주되고 반면에 현대의학에 대한 맹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 ‘의학은 의학이고 신유는 신유’라는 이중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신유와 현대의학은 서로의 방법론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나. 신유의 부정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 신유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유를 거부하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신유에 대한 맹신적 수용이다. 신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6) M. T. Kesley, Encounter with God (San Francisco: Harper, 1988), 42.

77) 전희근, 선교와 의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78.

### (1) 부정적 경험에 의한 견해

이들은 신유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반응은 신유나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경험에 기인한다. 프란시스 맥넛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막집회에서 부흥사들이 소리지르고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부리며 기절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다는가, 신문에서 엘머 게트리 식의 폭발적인 전도자가 번득이는 눈으로 양팔을 치켜들고 있는 사진을 본 것으로 신유의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sup>78)</sup>

### (2)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견해

이들은 신유를 심리현상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1900년대 초장부터 정신 상태가 육체의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의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정신, 마음 그리고 몸, 육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떤 육체적 질병은 그 원인이 심리적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부 육체적 질병을 심리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심리적 치유의 일부분은 아마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영구적이며 진정한 치유일 수도 있다. 결국 신유를 단순한 심리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게된다.

### (3) 비과학적이라는 견해

이 견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만 받아들이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어떤 것도 부인한다. 기적의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자연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부정한다. 창조주가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신유는 당연히 부인될 수밖에 없다.

### (4) 제한된 은사라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각 세대에 달성되어야 하는 특

78) Francis MacNutt, Healing (Notre Dame, IN: Ave Maria Press, 1974), 38.

별한 목적을 보여 주시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든지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sup>79)</sup> 그렇게 때문에 신유도 초대교회 기간에만 교회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칼빈도 치유의 은사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잠시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도들의 손에 의해 행해졌던 치유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고 주장하였다.<sup>80)</sup>

#### 다. 현대의학과 신유와의 통합

신유가 사도 시대에 더욱 자주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치의 병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었다는 보고는 신유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만 가능했던 것으로 제한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는 사라졌다'라는 엄격한 교리를 만들거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비록 기사와 이적이 사도시대 교회의 특수한 환경에서 적절한 은사였다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없지만, 동시에 호세아와 요엘이 지적인 데로 세기말을 향하고 있는 오늘날에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은 의료사역을 통한 영혼구원과 육신치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사역과 기도를 통한 신유가 적절히 통합되었을 때 환자의 온전한 육적 치료와 함께 영적인 치료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의료선교는 의술이라는 현대문명과 믿음이라는 은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 제 2 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선교사역 개요

#### 1.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설립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눅 9:6)라는 말씀의 근거로 삼고 '의료를 통한 복음화'를 실현

79) S. B. Ferguson,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 Grove, IL: IVP), 125.

80) 전희근, 184.

하기 위해 1982년 7월 15일, 3544 W. Olympic Blvd 한국종합의료원내에 소아과를 개설하고 밤에는 야간 진료로 일반 내과 외과로 진료했고 초창기 의료원 1989년 12월 30일, 808 S. Vermont Ave. #101, Los Angeles, California 90005에 현재 세워진 의료 선교 센터이다.

본 의료 선교회의 구성은 지역 사회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료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자들과 본 선교회에 상주하는 전임 사역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스케줄과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의료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기 선교 사역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전임 사역자들은 호산나 의료 진료소를 중심으로 매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개업의를 역임하였고 현재 호산나 의료 진료소의 담당의사로 있는 박호성박사를 비롯하여 세 명의 여성 간호원과 한 명의 여성 상담원이 한 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담당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 사역팀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이들을 통해 실제적인 복음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 선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늠케 하는 좋은 예 중 하나이다.

## 2.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목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맘모니즘적 우상숭배에 빠져 이웃을 착취하며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고도로 발달된 문명시대 속에서 여러 갈등과 스트레스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기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병에 걸리게 된다. 노이로제 공해로 인한 각종 암 오염된 공기와 물과 음식을 먹음으로써 비만증, 우울증, 신경쇠약증세, 강박증세에 빠지며, 삶에 의욕을 잃어버려 허탈감에 빠지며,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에서 실패자는 각종 스트레스와 절망에 빠지게된다. 마약, 술, 담배로 위로를 받아 보려고 하나 더욱더 절망과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오염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인체의 면역이 약해지고 각종 암이 발생하고 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풍), 각종 관절염, 신경통, 피부질환 등으로 시달리며 쾌락을 추구하게 위하여 마약에 빠지며 문란한 성생활의 원인이 되어 AIDS 전염성 감염에 빠지게된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혼돈된 생활로 방황하며, 퇴폐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로 크게는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허덕이고 작게는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있고 전세계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저자는 현대병 치료자인 의사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고 성서를 통하여 참 기쁨, 참 행복을 찾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싶다.

예수님의 치유는 아주 포괄적이다. 병과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께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mammon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일어났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의 살림이 임하여서 의인이 됐다. 또 이웃과의 살림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의 치유사역이고 복음의 내용이다.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목표는 교회의 부흥과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지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가. 성숙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선교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더라도 사역의 근본 목표를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나. 선교하는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이는 본 의료 선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 ‘의료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역의 본질이며 앞으로 계속되어질 사역의 목표를 제시하여 주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

### 다. 봉사하는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복음 전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라는 도구가 사용된다. 이 의료는 경제적인 이문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을 향한 단순한 전문적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역자들의 봉사하는 정신이다. 이 봉사정신이 결국 사역의 궁극적 목적인 영혼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 3.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은 그 형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호산나 의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사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오웬스 밸리(Owens Valley)지역의 인디언과 멕시코에 속한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의 원주민들을 위한 단기 의료 사역이다. 호산나 의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검진과 목회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검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적인 편리함으로 인해 1차 진료인 질병 진료 및 치료 후에 정기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정상 히스패닉과 흑인, 그리고 저소득 한인들이 그 주 대상이다.

인디언 및 멕시코 원주민들을 위한 의료선교는 주로 여름과 겨울을 이용한 단기 선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의료선교사들을 위한 좋은 실제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단기선교를 원하는 성도들의 참여의 장이기도 하다.

북미주 인디언 및 멕시코 원주민들을 위한 단기 사역은 1992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 이 사역에 동참한 자원 봉사자들은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등의 전문의 16명과 간호 및 의료보조원 28명, 이, 미용, 음식, 기타 봉사를 위한 인원 64명, 단기 선교 훈련생 10명 등 총 1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직접적으로 의료사역에 참여하는 전문의 및 보조원 43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명, 여성이 35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1.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타 봉사자 및 단기 선교 훈련생을 포함했을 경우 여성의 의료선교 참여

숫자는 총 102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약 8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미용 및 음식 봉사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의료선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의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금까지 사역에 참여한 사역자들의 이런 통계는 결국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사역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회 관념을 초월해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가 결국 사역의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 제 3 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VISION 21'

지금까지의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은 주로 호산나 의료 진료소를 축으로 로스앤젤레스와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역의 피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이 공간적인 제약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원 봉사자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필요한 물질적 지원이 몇 몇 병원과 개인에게 제한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호산나 의료 진료소의 개업 20주년과 단기 의료 선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도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관련된 전임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VISION 21'이라는 새로운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VISION 21'이 추구하는 주요 사역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역의 재정비

무엇보다도 'VISION 21'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재정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동안의 사역은 몇 몇 개인 중심이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행정이나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체계가 미비하였다는 단점을 새롭게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되어온 사역을 재정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역이 되도록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역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시간의 조정이다. 지금까지는 몇 몇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인 사무실의 업무 시간을 피한 시간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이 배정되어 왔다. 때문에 환자나 피선교 대상자들의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사역자들을 위한 시간 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사역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역은 사역자 위주의 시간표에서 벗어나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표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 2. 네트워크 결성

의료선교 사역은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사역이다. 이 종합적인 사역이 보다 효율적인 사역이 되고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야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 봉사자들을 발굴하며 나아가서 이들을 하나로 연계해서 사역에 참여 시켜야 한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인 홍보성 행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교회와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집회를 갖으며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여 이를 통해 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몇 몇 전임 간호 사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역자들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타민족의 자원봉사로의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수혜자의 대부분이 스페니쉬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를 수혜자와 같은 인종에서 찾을 수 있도록 사역의 참여를 그들에게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문인 사역자들의 네트워크는 크게 지역과 국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은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무실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병원과의 연계이다. 그 동안은 전문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시간과 의술을 통해 사역에 참여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서 이러한 병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한국의 의료선교단체 및 의료인들과 연계하는 사역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선교사역은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남미, 심지어는 북미의 소수 민족에게도 그 사역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전문인들의 관심과 성향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선교단체와의 연계는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을 한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역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든 사역자들이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을 확인하고 기도하며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VISION 21'이 지향하는 사역의 중심에 놓여있는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단기 선교사 파송

'VISION 21'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심 사역은 단기 선교사의 파송이다. 그 동안 여름과 겨울을 통한 단기 현지 의료선교를 가져 왔지만 이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료 선교팀이 현지를 떠나게 되면 수혜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선교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여름과 겨울 선교 외에 지속적인 단기 선교사의 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기 선교사에는 그동안 선교에 합류하여 사역에 참여하였던 전문 의료인과 간호원 그리고 그밖에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봉사자들은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 보조인들이다. 이들은 그 동안의 치료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고 나아가서는 현지인들을 계속 상담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선교는 그저 일년에 한 두 번의 연례행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속적 선교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목회자 무료검진

우리주위에는 형편이 어려우신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서는 신분과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금까지 호산나 의료 진료소에는 그와 같은 환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도움을 베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의료의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목회자 전용 클리닉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목회자 및 선교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진료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 5. 불법 체류자 검진

‘VISION 21’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 선교 사역의 범위를 한국으로까지 확대했다는 데 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에도 많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향한 의료지원의 시급함은 지금까지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곳 불법체류자들은 비록 정부의 의료혜택의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할 지라도 앞으로의 신분 변경 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의료 혜택을 거부하는 현실이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자유롭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는 이곳 로스앤젤레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방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인당 GNP가 10,000불을 넘어서면서 한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었고,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연수생의 자격을 주어 후진국의 젊은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부족한 3D업종과 중소기업의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하는 결과를 의식한 조치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많은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낮은 노임으로는 일반 수

가의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단기 의료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멀리 한국에서 최근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인식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그곳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자 하는 병원이나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같은 시설이 가진 한계와 특히 중병의 치료나 수술에 따른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낀 것이다. 이에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의사회 소속 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외국인을 위한 의료 보험의 필요성을 서로 나누고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

#### 6.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 비전 영역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VISION 21'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비슷한 관심과 필요 그리고 재능에 따라 영역을 구성하고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에 다른 비전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원 영역

이는 의료선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사용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성 관리한다.

##### 나. 운영 영역

이는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을 계획, 홍보, 운영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 다. 훈련 영역

선교지 연구 및 전문인들의 학술적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단기 선교사들의 모집 및 훈련이 실행되기도 한다.

## 라. 기타 영역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이 모색되며 전문인을 제외한 기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끝으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가운데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들이다. 사역자들이 환자를 위하여는 많은 기도와 영적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안감이나 잘못된 편견 그리고 그릇된 의학 상식들 때문에 환자의 불안감이 조성될 때도 있다.

보호자가 가지는 불안감은 얼굴이나 마음의 동요로 나타나 곧 환자에게 그 불안이 전달되어 환자에게 유익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자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 영적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사역자들은 환자, 보호자, 간호원 그리고 담당 의사와 상담원이 함께 만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 모임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매우 많은 것을 질문할 기회가 된다. 환자의 상태와 예우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

간호원은 간호에 관한 문제를, 의사는 환자의 질병과 예우에 관한 것과 영적 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고 상담원은 영적 권면과 은사적 치유에 관해 설명과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 그 가족들의 불안감들을 해소하며 그들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임 이후에는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훨씬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본다.

의료선교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 전문 의료인과 그 보조원들로 구성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여성들이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 사역이 되도록 각 분야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의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 제 7 장

## 의료선교의 역사적 고찰과 간호선교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선교 사역이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 사역은 근대 의료선교 사역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의 한 장을 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의료선교의 역사적이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선교를 논 할 때 여성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항상 대두되는 것은 간호선교에 관한 것이다. 박광철 목사도 여성선교사들의 사역을 열거하면서 의료활동과 간호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81)</sup> 특히 여성 간호원이며 상담원으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본인에게 있어서 간호선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혹자는 간호선교를 의료선교에 포함시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간호선교의 범주안에 의료선교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의료선교의 역사적인 고찰과 더불어 간호선교의 의미를 논하려고 한다.

## 제 1 절 의료선교의 역사적 고찰

## 1. 의료선교의 기원과 발전

근대선교운동은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1792년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해야 할 책임에 관한 연구”(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라는 제목의 87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교회의 선교사명을 고취하기

81)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55-57.

시작하였다.<sup>82)</sup> 그리고는 자신이 침례교선교회(BMS, 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조직하고, 1793년 6월 13일 아내와 4자녀, 그리고 두 사람의 동료와 함께 인도를 출발하였는데 이것이 현대선교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케리에 의해 조직된 침례교선교회와 그의 활동은 근대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런던선교회(LMS, London Missionary Society, 1795), 스코틀랜드 및 글라스고선교회(Scottish and Glasgow Missionary Society, 1796), 화란선교회(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 1797), 영국교회선교회(CMS, Church Missionary Society, 1799), 미국해외선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1810), 스위스의 바젤선교회(Basel Mission, 1815) 그리고 독일의 베르린선교회(Berlin Missionary Society, 1824) 등과 같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조직되었다.<sup>83)</sup> 위대한 교회사학자인 라토엿(K. S. Latouette)의 말처럼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 of Missions)를 열어가게 된 것이다.<sup>84)</sup>

18, 19세기를 거쳐가면서 개신교의 선교는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유럽과 영미의 개신교회들은 선교사업을 감당할 힘도 없었고, 그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교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발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초교파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단체가 1793년에 조직된 “침례교선교회”였는데, 이름은 “침례교선교회”였으나 사실은 초교파적 기구였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부터는 교회가 중심이 된 교파적 선교단체도 생겨났고, 또 특정한 교파나 교단, 혹은 선교기구의 지원 없이 시작된 신앙선교(Faith Mission) 단체들도 생겨났다.<sup>85)</sup> 그 외에도 특정한 인종, 예컨대 유대인, 인디언, 에스키모 등과, 특수계층 예컨대, 나환자, 부녀자나 아동, 군인 등과 특수한 사업, 곧 성경번역, 문명퇴치, 봉사와 구호 등을 주로 하는 다양한 선교기구나 단체도 조직되어 스테판 널의 말처럼 “위대한 선교단체의 시기”(the great age of societies)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sup>86)</sup>

선교지에서 의료활동 혹은 의료사역은 근본적으로 복음증거를 위한 선교사역이지만 선교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적 봉사였고, 의료활동이 복음화에 끼친 영향

82) 김연진, 선교신학 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5), 84.

83) 채은수, 선교학총론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1), 277.

84) Ibid.

85) J. Herbert Kane, 세계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25.

86)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1986), 262.

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사도시대부터 선교의 3대 분야는 전도(preaching), 교육(teaching), 의료(healing)였는데, 실제로 의료선교가 실행된 것은 19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설교가 선교사역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선교는 주로 안수 받은 목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남성들의 독점적인 활동영역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를 거처가면서 선교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목사선교사만이 아닌 평신도 선교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교영역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문인 선교가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이 선교지에서 환영을 받았고 의료 및 교육선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국의 선교에서 가장 주요한 사역이 되었다. 그 결과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sup>87)</sup>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양문화의 배경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간에 서양 문화의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9세기 이후 선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여성 선교사의 출현이었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선교사역이 수행되었으나 여성도 선교의 동반자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평신도 사역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런 변화는 19세기부터는 여성의 헌신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독신 여 선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반대의 여론도 없지 않았으나, 19세기말에 와서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여 선교사의 숫자가 남자들의 숫자를 능가하였다. 이 점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선교현장에서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는, 선교지에서 전문인 사역이 더욱 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의료진들에 대한 요구는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선교는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케리가 1793년 인도로 갈 때 동료였던 존 토마스(John Thomas)는 의사였다는 점에서 교회의 의료적 봉사는 윌리엄 케리의 현대선교운동과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sup>88)</sup> 의료활동을 하는 선교사가 등장한 것은 사실 19세기 이후였다. 1819년 실론(Ceylon)에 도착한 미국출신의 의사 존 스커더(John Scudder)는 미국

87) 김연진, 선교신학 총론, 114.

88) 전희근, 선교와 의료, 208.

교회가 파송한 첫 의료선교사로 알려져 있다.<sup>89)</sup> 그는 실론과 인도에서 36년간 의료선교사로 봉사하였다. 1835년 중국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한 피터 파커(Peter Parker)도<sup>90)</sup> 초기의 의료선교사였다.

최초의 여자 의료선교사는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1870년 인도에 도착했던 미국 감리교의 클라라 스웨인(Clara Swain)과 1880년에 인도에 도착한 화니 버틀러(Fanny Butler)로 알려져 있다.<sup>91)</sup> 최초의 간호사 선교사는 1884년 중국 상해에 도착하였던 미국의 엘리자베스 맥케니(Elizabeth M. McKechnie)로 알려져 있다.<sup>92)</sup> 물론 의료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도 목사선교사들이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의료교육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런던선교회(LMS)의 파송을 받아 1841년 아프리카에 파송된 이후 23년간 사역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1813-1873)<sup>93)</sup>이나, 1854년 중국에 파송되었던 허드슨 테일러(1832-1905) 등<sup>94)</sup>은 상당한 정도의 의학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저들의 의료활동은 단지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선교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역은 나환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영국 더블린에서 1894년 윌스리 베일리(Wollesly C. Bailey)라는 장로교 교육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나환자선교회(The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선교회는 특히 인도에서 나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기독교적 인간애와 사랑으로 거룩한 봉사의 역사를 엮어 갔다는 점에서 의료선교사의 획기적인 봉사였다.

의료선교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이다.<sup>95)</sup> 의사이자 신학자였고, 유명한 음악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였던 그는 1913년 서부 아프리카에서 의료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여 람바레네(Lambarene)에 병원을 건립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형제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89) 전희근, 선교와 의료, 252.

90) Ibid., 217.

91) Ibid., 209.

92) Ibid.

93) 강문석, 선교신학 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06.

94) Ibid., 105.

95) 전희근, 선교와 의료, 222.

## 2. 한국에서의 의료선교활동

한국에서의 의료사역은 알렌(Dr. Horace Newton Allen, 安連, 1858-1932)의 내한과 함께 시작되었다. 알렌은 1884년 9월 22일 입경한 최초의 거주선교사였다. 그는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때 크게 다친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여 준 일로 고종과 명성왕후의 신임을 얻고, 어의(御醫)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1885년 4월 10일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신식병원이었다.<sup>96)</sup>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의 의료선교 사역은 한국선교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사(醫療宣敎史)는 한국교회사 만큼이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선교를 개시한 장, 감 교단 선교부는 의료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 초기부터 의료활동, 곧 검역, 시약, 보건-위생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1893년 장로교 공의회가 정한 선교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네비우스(Nevius)선교방법을 원용하여 채택한 이 정책 중에는 의료선교가 전도에 모아져야 함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의료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고,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시약(施藥)만 가지고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고향의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서 의료선교사들의 인애에 넘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받아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sup>97)</sup>

1880년대 이후 적어도 1940년까지는(그 이후도 물론이지만) 한국에는 각종 전염병과 피부병이 만연하였고 외과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안과, 치과적 병도 심각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의료, 보건활동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선교의 방법이었다.

의료선교사들은 시약소의 설치나 검역, 위생활동과 교육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광혜원, 시(施病)원,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을 설립하여 예방과 치료에 힘썼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6개 선교부는 선교지역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고, 해당 지역에 진료소나 병원을 설립하였다.<sup>98)</sup>

96)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128.

97) 김남식 편저, 네비우스 선교방법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58.

주한 선교사들은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을 시행했다. 알렌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의학교육은 1886년 3월 29일에 시작되었다. 경쟁시험을 거쳐 1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고 이들에게 영어, 기초 과학분야와 의학교육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특히 에비슨은 병원의 운영과 함께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의학서적을 역간하고 1899년부터는 정규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교육 기관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였다. 7명의 젊은이들이 의학교육을 받은 후 각종시험에 합격하므로 1908년 6월 졸업과 동시에 의사가 되었다. 그들이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직, 홍석후, 홍종은이다.<sup>98)</sup>

에비슨과 함께 초기 한국 의학교육에 기여한 선교사로는 1895년에 내한한 웰즈(Dr J. Hunter Wells, 禹越時), 1901년에 내한한 샤록스(Dr Alfred M. Sharrocks, 謝樂秀), 1904년에 내한한 허스트(Dr Jesse W. Hirst) 등이었다. 에비슨은 모국인 캐나다의 영예로운 교수직과 의사직을 버리고 내한 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 의학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의 책임자로 한국의료선교사와 한국 의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 일한 의료선교사로는 알렌 외에도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헤론(John Heron), 엘러스(Miss Annie J. Ellers), 벙커(D. A. Bunker), 호튼(Lillias Horton), 빈튼(C. Vinton), 에비슨(O. R. Avison), 화이팅(Georgiana Whiting)의사 등이 있는데, 알렌의 입국 이후 내한 한 의료선교사는 약 330여명에 달한다.<sup>100)</sup> 이들은 앞의 자료가 부분적으로 보여주듯이 30여 개 처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에는 한국의료선교사 협의회(The Korea Medical Missionary Society)가 조직되어 의료선교사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수고와 봉사는 기독교의 선교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발전과 의학교육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38년 통계에 의하면 주한 의료선교사수는 328명이었는데 선교부별로 보면 북장로교 선교사가 84명, 남장로교 44명, 북감리회 59명, 남감리회 32명, 성공회 31명, 캐나다연합교회 22명, 그리고 독립선교사가 35명이었다. 또 안식교가 파송한 10명, 천

98) 이기문 편저, 기독교대백과사전, 12:1000.

99) 손인철, “한말, 일제 치하의 사학사 연구,” 한국 근대 교육사 (서울: 연세대학교, 1971), 24.

100) 이기문 편저, ibid., 1001-1003.

주교의 11명의 의료선교사들도 해방 전까지 한국에서 활동했다.<sup>101)</sup> 내한했던 의료선교사 중에 헤론(Heron), 홀(W. Hall), 랜디스(E. B. Landis) 오웬(C. C. Owen) 등은 과로와 격무로 한국에서 순직 혹은 순교하였다.

### 3. 의료활동이 남긴 유산들

의료선교활동은 교회와 교회공동체 곧 선교단체가 행해왔던 가장 고귀한 활동이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자 기독교적 사랑과 자비의 행위였다. 19세기 이후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국에서 일한 의료선교사들의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목사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지만, 목사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없거나 활동이 제한된 곳에서 선교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서 의료선교사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줌으로서 복음의 위력과 기독교적 사랑을 보여주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의료활동은 교육활동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역이자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었다.

한국에서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의료 선교사들의 기여와 봉사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통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증거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예비슨 박사는 초기 의료선교가 남긴 공헌에 대하여 다음의 5가지로 설명한바가 있다.<sup>102)</sup> 첫째, 호열자나 각종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의료선교사들의 시약, 시료, 종두 등 예방과 치료활동을 통해 병이 미신과 악신(惡神)에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인간을 미신적 공포에서 해방한 점, 둘째, 종두(種痘)의 보급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현상, 셋째,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구제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점, 넷째, 예방, 시약, 치료, 공중위생 및 보건증진 등 각종 의료활동을 통해 기독교신앙이 전파되고 수용된 점, 다섯째, 의학교제의 번역 및 의료관계 저술을 통해 한국에서의 과학교육 혹은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의료활동이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했다는

101) 전희근, 선교와 의료, 249.

102) 손인철, “한말, 일제 치하의 사학사 연구,” 28.

점이다. 의료활동은 기독교에 대한 물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에로 심리적 변화의 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의료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방편이었고 한국에서의 경우 이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아픈 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은 복음운동의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제 2 절 간호선교

본인과 다른 세 명의 간호사들은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의료선교 사역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이 반드시 여성에게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료선교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간호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1. 간호선교의 개념

간호선교가 무엇인가를 다루기 전에 먼저 간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호가 무엇인가 라는 견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호란 건강전문직(Health Profession)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인간봉사 전문직”(Human Service Profession)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며 재활하는데 있다.<sup>103)</sup>

간호는 그 특성상 개념이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학문적 특성상 그 범위가 크고 넓다. 따라서 대상자별로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세계, 더 나아가 우주가 그 단위가 된다.<sup>104)</sup> 분포별로는 병원, 가정, 지역사회, 산업장, 학교 등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간호가 행해지는 곳이 될 수 있다. 인간발달 주기 별(Life Cycle)로는 임신과 수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갱년기, 노년기, 임종환자 등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대상자를 돌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간호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있어 그 개념이 자주 혼돈 되어

103) 이태웅, 선교연구, 제38호 (서울: 한국선교훈련원, 1998, 4), 3.

104)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설립이념구현을 위한 간호학과 특성화 전략 (서울: 고신대출판부, 1999), 24.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의학과 간호학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 역사적 유래가 서양의학은 그리스에서 발달해 왔고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간호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인간을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보는 대상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하였다. 한 예로 간호사란 신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영혼의 상태가 잘 되도록 돌보는 것이고 의사란 질환을 다루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즉 간호의 특성은 대상자를 전체로 보고 돌보는 데 있다.<sup>105)</sup>

간호는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내포되어있는 반면 의학은 과학적인 측면이 많이 치중되어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학은 영적인 측면이나 심리적 차원은 종교나 심리학에 맡기고 인간의 몸의 과학적 차원만을 문제시했다.<sup>106)</sup> 여기서 인간 삶의 예술적인 면이란 영적, 정서적인 면으로 종교와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간호는 정상이나 병리학적인 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삶과 건강한 육체와 죽어가는 혹은 아픈 것까지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는 신체적 돌봄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신체보다는 사회심리적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간호를 새롭게 재 정의하려고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간호이론가들은 사회심리적 면에 집중하고 임상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초점을 둬으로써 기술자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디스 셸리(Judith A. Shelly)는 그의 저서 Called to Care에서 기독교간호를 정의하기를 기독교간호(Christian Nursing)란 아파 고통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위로를 줌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최상의 돌봄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sup>107)</sup>

간호선교의 개념도 간호의 정의에 따른다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호가 의료선교의 한 부분으로 규정짓는다면 그것은 협의의 정의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간호선교는 의료선교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간호선교의 부분에 의료선교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105) Judith A. Shelly & Arlene B. Miller, Called to Care: Caring & Christian Story (Illinois: IVP, 1999), 54.

106) 이상규, 의료선교의 간략한 역사 (서울: 한국누가회 출판부, 2000), 187.

107) Shelly & Miller, *ibid.*, 12.

그것은 간호가 성격상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호의 이러한 독특성이 오늘날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의사선교사나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간호선교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진단하며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일이나 배낭을 앞뒤에 지고 타잔처럼 덩굴을 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를 찾아서 새롭게 복음과 약품을 나눠주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간호선교는 그리스도의 영적군사원 자로서 전쟁의 최전선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처럼 제일 먼저 파견되어 적지를 탐색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며 후방에서 병원이나 클리닉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간호사처럼 근무한다. 때로는 후방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여하기도 한다. 이런 사역은 영적건강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

한편 간호선교의 이점은 간호직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전문직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간호선교사도 있지만 독신들이 많다. 독신선교사들이 갖는 문제점도 있지만 독신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든지 가족에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선교에 전념할 수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선교사에게 드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즉 적은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효과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 2. 간호선교의 성경적 근거

앞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TPH로 요약될 수 있다. 본인은 간호사로서 그리고 상담원으로서 치유사역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치유란 전체(Wholeness) 혹은 전인으로서 인간과 그 환경에 대한 온전함을 의미한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치유가 기독교 신앙본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으며<sup>108)</sup>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관계적), 영적 돌봄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관계를 가지셨다. 그러나 그중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단순히 표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떡만 먹고 배부르고, 병고침만 받고 떠난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처럼

108) 이상규, 의료선교의 간략한 역사, 122.

소년소녀가장의 가정, 고아와 과부, 창녀들 문둥병자들(소위 오늘날 에이즈환자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돌보셨던게 사실이다.

한편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Kerygma), 가르침(Didache), 섬김, 치유(Diakonia), 교제, 사귄(Koinonia)으로 본다면 이 4가지의 사역이 교회 내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가르침 부분이 약하다. 즉 봉사, 섬김, 나눔이 약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증거와 선포, 배움과 가르침, 치유와 봉사, 친교와 사귄이 있었다.

오늘날 간호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기독간호사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오늘날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치료사역이라기 보다는 돌보는 사역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치유사역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상규는 지적하기를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교회공동체의 의료사역의 근거와 동기와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09)</sup>

따라서 기독교회는 3가지 이유 즉 기독교적 인간이해, 병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애행위로서 건강과 회복과 치유에 대해 깊은 관심가지고 실천해왔으며 이것이 의료선교의 활동의 동기라는 것이다.

본인은 근대의료선교의 유산을 이어받은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간호사로서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섬김을 다하고 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은사에 따라 각자 섬겨야 하는데 특히 오늘날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치유사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기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자나 환자들에 대한 관심 곧 간호나 치유행위는 기독교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겨야하는 어떻게냐는것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한다. 지구상의 많은 인구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하는지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한다. 그리고 나의 장점과 약점

109) 이상규, 의료선교의 간략한 역사, 125.

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고 장점은 계속해서 개발해야한다. 왜냐면 은사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엡 4:11-12 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간호라는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보는 분도 있다. 미국교회의 쇠퇴 원인이 모이는 교회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교회가 IMF 이후 모이는 교회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지속되어 질 수 있다. 앞서 말한 바 선교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개인, 교회는 언제든지 침체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제 8 장

## 선교적 효율성을 위한 의료선교의 패러다임

19세기 이후 전문적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선교사의 등장 이후 의료 선교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초기 단독 진료에서 병원사역, 의학교육, 지역사회 보건 등을 통해 선교하는 형태로 변해 왔다. 이러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하나는 과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혹은 미래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한 방법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 모든 사역들이 모두 중요하며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일 의료 선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일부 젊은 의사들은 병원이 아니거나 현대 장비가 없는 곳에서 진료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어떤 의사들은 오지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단독 진료는 과거에 있었던 형태로서 오늘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물론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원시적인 형태의 단독 진료도 지금도 세상 어느 지역에서는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형태일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의료선교의 허와 실을 살펴 본 후에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단기선교와 자비량 선교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를 위한 자질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 제 1 절 의료선교의 허와 실

21세기에 들어서 가속되고 있는 세계의 변화는 그 동안 공산권으로 간주되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문을 열도록 하였으며 회교권까지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문호를 개

방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선교사들에 대한 문호는 더욱 좁아져 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타국에 들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비량, 특히 의료선교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sup>110)</sup> 그러나 의료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선교의 허와 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1. 의료선교의 허

의료선교는 일반 선교와는 달리 복합 사역을 이루어야 하므로 일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외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구에서의 의료선교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인 편이다. 왜냐하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고 비싼 장비 등으로 인해 선교 단체들이 의료선교에 선교비 분배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나 선교 대상 국가에서의 자격 제한 등 선교지의 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는 의료선교사에 대해 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의료법이 선교사에게 매우 미묘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현지 상황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의료 경비와 의료비의 상승으로 의료 선교는 원래 의도인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유한 자를 돕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의료 선교 대상의 하나인 미개발 국가도 의료 혜택을 준비하고 보급을 시도함으로써 자국민이 아닌 선교사에게 진료를 맡기기를 꺼리고 있고, 자국민 의사와 타국민 의사간의 경쟁심이 아시아권에서 의료인 규제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선교학적 원리의 문제이다. 현지 선교가 영혼의 구원을 통한 교회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의료 선교의 경우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면에 있어서 현지 교회로부터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계획-외부로부터의 기금 도입의 관계성,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등을 갖는 의료선교-의 시작을 거부당하고 있다.

## 2. 의료선교의 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료 선교는 현대 선교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110) 데츠키나오 야마모리, 직업선교, 이득수 편역 (서울: IVP, 1990), 27.

장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료 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비복음주의 선교기관(W.C.C.)에서는 1960년 이후 그때 그때의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여 인간화, 정치화(해방 신학, 정치, 신학 등)를 추구하여 선교의 변질을 가져왔다. 그 결과 영혼 구제나 복음 전파 등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선교비나 선교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1966년 베를린 대회에서 의료는 복음 전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지만 1974년, 1989년 로잔 I, II를 통해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위한 의료의 역할이 인정되어 의료선교의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이에 의해 의료 선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제 의료선교는 선교의 보조 도구로써가 아닌 선교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 선교지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나 중세 교회, 그리고 18세기 이후 식민지 시대 교회에서 선교사는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1945년 이후 현대 선교는 정치적 해방, 국수주의, 자기 자원 확보 등에 의해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재래식 선교사로서는 선교지의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전문인으로서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 선교전략의 변화이다. 최근 장기선교가 퇴색하고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비자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한 지역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전도하여 교회와 연결시키고 그곳을 떠나는 "Project Jonathan"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자국 국제기관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선교에 F.O.C., 중동선교에 Interserve(B.M.M.F.), 부족 선교에 W.B.T., G.B.T. 등의 국제기관이 있다. 의료 선교는 이런 단체들의 활용이 가능하고, 선교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은 국제기관을 통해 얻을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다.

요약한다면 의료선교는 필요한 인력의 확보, 장비의 확충,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 의료법 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선교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정립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료인을 사용하시고자 한다. 따라서 의료 선교는 선교사로서의 질적 자질뿐만 아니라 영성, 헌신도 그리

고 의료인으로서의 의학언어라든지, 전문성등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선교는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어려워질 조짐이 보인다. 이때 의료인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제 2 절 단기 의료선교

일반 신도들의 단기 선교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현대 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단기 선교 참가자들의 약25퍼센트가 나중에 평생 선교사가 되고 약75퍼센트의 평생 선교사가 과거에 단기 선교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단기 선교의 중요성은 명백하게 입증된다.<sup>111)</sup> 이런 이유 때문에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에서는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단기선교를 이용, 발전시키고 있다.

단기 선교의 정의, 봉사기간, 목적, 전략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한 정의가 없다.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회(PCA-MTW)에서는 단기 선교의 기간을 2주 이상 2년까지라고 정의했다. 어떤 단체에서는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간 봉사해도 단기 선교라고 인정해 준다.

오늘날 단기 선교는 장기선교와 함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단기 선교 팀과 일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선교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형태의 단기선교는 오늘날의 선교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수많은 기여를 해왔다. 잠재적 선교자원들을 선교현장으로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장기 선교사로서 접근이 어려운 창의적 접근지역에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의 접점을 마련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으며, 정착 선교사를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서 선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역의 효율을 높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단기선교 전략 중에서 단기 의료선교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 1. 단기선교의 유형

단기 선교는 통상 선교의 기간과 그 내용에 의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질

111) 전희근, 선교와 의료, 264.



수 있다.<sup>112)</sup>

SM-1: 선교여행(Mission Trip) - 선교 관심자 또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선교현장의 필요를 알게 하고 타 문화권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목적을 두고 1주에서 4주(통상 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선교현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Vision Trip을 의미한다.

SM-2: 단기 선교 훈련(Short-term Mission Training) - 선교 헌신자들에게 제공되는 선교현장에서의 문화 적응 및 언어습득을 위한 단기 훈련과정으로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의 기간에 이뤄지는데 6개월이 일반적이다.

SM-3: 단기 선교사역(Short-term Mission Ministry) - 어느 정도 선교훈련을 마치고 전문적인 선교사역에 진입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현지의 교회개척과 복음사역에 직·간접적인 사역을 행하되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에 사역을 하는 경우라고 본다.

## 2. 단기선교의 목적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은 복음전파와 교회 설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의료나 교육, 구제와 같은 봉사 사역은 선교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구제와 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는 에큐메니칼 계통의 선교는 복음적인 말씀 전파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 들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양극단을 절충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선교현지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육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의료나 교육, 구제 사역 등을 병행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선교의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한정된 짧은 기간에 끝나는 단기선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선교의 목적을 복음전파와 교회 설립, 봉사 사역 등이라고 한다면 단기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단기선교의 목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참여하는 개인이나 선교활동의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112) H. Chun & Y. H. Kim,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Wheaton, Ill.: Billy Graham Center, 1991), 69.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선교의 목적을 이런 의미에서 (1)개인의 변화, (2)교회의 변화, (3)현지 선교사를 돕는 것<sup>113)</sup> 등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단기 의료사역의 가능한 형태<sup>114)</sup>

#### 가. 한 샘플 파기

단기 사역은 속성상 지속적인 사역을 펼칠 수가 없고 현지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기 선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곳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방법이다.

#### 나. 업그레이드 단기 선교

매년 대규모 팀이 가서 많은 환자를 보고 오는 것이 전시효과 면에서는 그런대로 전과를 올릴 수 있지만, 진정한 영향력 면에서는 들인 노력과 재정에 비하면 효과는 미미하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 팀을 구성할 때 그야말로 전문인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만약 안과 전문의만으로 팀을 구성하여 현지와 긴밀한 협조아래 단기간 가서 백내장 수술만 하고 온다든지 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 5분 대기조

소위 말하는 재난 구조팀으로, 재난을 당한 나라가 있을 때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에 침투하여 선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팀의 운용은 정보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업무를 관장해 주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 라.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을 베이스 캠프로 정해 놓으면,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팀들을 보내어 사역을 하든지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협력사역을 통해 현지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

113) 전희근, 선교와 의료, 265.

114) Y. H. Kim & H. Chon, Short Term Mission in Korean Church (Philadelphia: KUMC, 1991), 87-90.

#### 마. 달란트 발휘

의료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의 의대나 병원과 연결이 되면 교수 요원들이 선교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수술을 함으로서 현지와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더욱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순회 선교사역

이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 협력하여 그곳의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단기적이고 전문화된 사역이다. 이 사역의 원리를 보면 ① 전적으로 이 선교사역만을 위해 준비되고 존재하는 선교사(전임 장기 선교사), 언제 어디서 요청해도 응할 수 있는 팀 ② 한 지역에 메이지 않는 비거주 사역형태 ③ 믿음 선교에 위탁된 자(개인후원) ④ 전문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자(각 영역) ⑤ 단기 사역 형태 ⑥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교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적 선교사역을 하는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위치로서 준비되어진 자로 순회 선교 팀을 구성해서 공히 복음적 사역을 하는 정착 선교사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아 최고의 효율로 강력한 선교사역을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사. 대규모 종합 진료팀

이는 대규모의 의료종합팀을 선교지에 파송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환자와 다양한 질병을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대규모의 인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선교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종합 진료팀의 파송은 현지 정착 선교사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현지 의료선교사가 종합 진료팀이 떠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맡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3 절 자비량 의료선교

자비량 선교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자비량선교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나중에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교사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국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 성향이 더 강하여 목회선교사만 선교사로 인정하고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신학을 할 것을 권유받아왔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하여 보면 자비량선교의 역사가 바로 교회성장의 역사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서 자비량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의 쓸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장막을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sup>115)</sup> 고린도지역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행 18:1-4) 이후에 에베소에서 같은 일을 하여 행 20:33-35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그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감당하여 “범사에 모본을 보였나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다시 깨우쳐 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그 보다 이전에 이미 자비량 선교의 역사가 나온다. 바울을 파송하였던 안디옥교회는 요즘에도 선교하는 교회의 모범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 자체가 자비량 선교의 결과이다.(행 11:19-26) 사도들보다 뿔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각 지방으로 간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후에 사역자들을 초빙하였던 것이다. 이 교회는 후에 예루살렘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행 13장에 따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파송한다.

로마서도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으며 노예들도 있었다. 한국교회의 시작도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만주에 드나들던 이들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자비량선교를 다시 선교역사에 등장시킨 이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이다.<sup>116)</sup> 그는 18세기에 선교에 대해 교회가 각성하지 않고 있을 때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어간 선각자이다. 그는 언제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구두수선공이었고 인도에

115) J. Christy Wilson Jr.,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만홍 역 (서울: 순 출판사, 1989), 30.

116) Ibid., 27.

서는 인디고 염색공장의 지배인으로 후에는 교수와 학자로 자신과 팀이 쓸 경비를 조달하면서 성경번역과 교육과 선교에 헌신하였다. 또한 그는 세람포트리오라는 팀사역을 통해 자비량선교와 협력선교의 성공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근대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케리 뿐만 많은 선교의 선각자들이 자비량선교사였던 것을 바라보면 자비량선교란 선교의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자비량 선교의 장점

자비량 선교는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한적인 국가에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등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60억의 세계 인구 중 약 35억의 인구가 기독교를 거부하며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직종은 받아들이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의료인은 일부 사회주의적 국가 외에는 환영받고 있는데 특히 전문의, 관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의 간호사, 제약회사들의 경우는 환영받는다.

대개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는 불특정다수와 접하게 되고 상류층부터 빈민층까지 고루 대할 수 있고 어느 층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려 하므로 쉽게 영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현지인들로 인해 예를 들어 비자 연장 등의 실생활에서 직접 도움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자비량 선교의 장점 중 몇 몇 예에 불과하다.

크리스티 윌슨(Christy Wilson Jr.)은 자비량 선교사들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17)</sup>

교역자가 아니니 자신들의 종교 선전자로 취급당하지 않는 것과 특히 선교사들이 만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주워졌고 통상적인 선교사들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교회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이처럼 그들은 자기 직업 성취에 만족하므로 좌절감에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들은 선교사가 입국하

117) J. Christy Wilson Jr.,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96-97.

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 할 기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다.

## 2. 자비량 선교의 단점

하지만 자비량선교에도 문제점들이 있다. 최근에는 이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켜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형태의 선교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후원도 같이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우려하는 자비량 선교와 관련한 몇 가지 단점은 다음과 같다.<sup>118)</sup>

일하는 나라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겠고 특히 현지 언어를 배울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봉사 기간이 보통 1-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점과 전적으로 직업에 종사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전도하면 '위장 선교사' 즉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게 되고 직장 상사에게 충성 다해야하니 이중의 동기를 가졌다고 비판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여 실패할 수도 있고 현지 사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일하는 회사나 단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격려해 주지 않고 사전 설명과 지도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과다한 업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적으며, 영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게 되며 현지 국민과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부족한면이 생기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3. 자비량 선교의 영역

의료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직종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전문인으로 인정받으며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국가별로 받을 수 있는 보수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비량 선교를 하려면 직종에 따라 선교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경우 낮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자국민과 같은 보수를 받는 경우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본국에 여행한다든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독신인 경우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118) J. Christy Wilson Jr.,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93-96.

는 않으므로 생활할 수는 있다. 반면에 서구유럽이나 아랍권의 경우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반면 지원자가 사람이 적어서 보수가 높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외국출신이다. 유럽에서도 취업을 할 정도로 보수가 좋아서 자비량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중동에 취업을 하였었고 지금 다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약사의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국내 제약회사가 저개발국에 진출을 할 때 주재직원으로 파견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선교지 국가에 제약회사나 유통회사를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약사나 기업인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의사는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파견의 의사이다. 이는 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저개발국에 지속적인 의료시설 제공이 되고 있다. 국제협력단을 통해 파견되는 의사는 정부파견의와 국제협력의사가 있다. 국제협력의사는 군의관대신에 외국에서 근무하는 제도로써 1985년에 1기가 파견된 이래 현재 5기가 파견되어 있다. 총 27명이 파견되었고 이중 15명은 임기가 끝나 귀국하였다. 정부파견의는 필요에 따라 비정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sup>119)</sup> 이들 정부파견의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관계를 통하여서 자비량 선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자비량선교는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고 특히 전문의가 적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개업도 자비량선교를 할 수 있고 다른 선교사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제 4 절 전문인 선교사역을 위한 자질

의료선교는 전문인 선교이다. 따라서 의료선교사는 일반 선교사가 지녀야할 자질뿐만 아니라 의료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의학

119) 전희근, 선교와 의료, 282-283.

적인 지식만을 갖고 선교에 임할 수 없음을 암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가 전문 선교사가 될 수 없음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선교사는 의술과 더불어 영혼을 살리는 자이다. 따라서 선교사로서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의료선교사가 선교에 발을 딛기 전에 발전시켜야 될 자질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일반적인 면

### 가. 영적인 면

의료선교사는 특수한 성도일 필요는 없으나 그의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그는 지속적인 성령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 자신의 문화권에서 기독교인 삶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을 세울 수 있기 위하여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그 자신 스스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20)</sup>

의료선교사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성공한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열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선교지에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 경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나. 사회적인 면

의료선교사가 강력한 자아긍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가 특수하다고 생각되어 주시의 대상이 될 때 더욱 그렇다.

또한 의료선교사는 복합적인 인간관계에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의 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sup>121)</sup> 그는 어떻게

120) David H. Adeney, 예비 선교사를 위하여, IVF 역 (서울: IVP, 1982), 2-5.

121) Ibid., 5-8.



명령을 받으며 지시를 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그를 앞서있는 사람들(다른 선교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한다.

#### 다. 학문적인 면

의료선교사는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에 충실해야 한다.<sup>122)</sup> 이것이 일반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 라. 육체적인 면

의료선교는 주로 자신의 생활 환경을 멀리 떠나서 이루어진다. 이때 선교현지의 생활은 주로 자신의 생활환경보다 더 어렵다. 의료선교사들은 남을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sup>123)</sup>

#### 마. 심리적인 면

한 통계에 의하면 약 10퍼센트 정도의 선교사가 정서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도중 하차한다. 의료선교사는 자기 통제(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문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응 불능이 타문화권 사역에 실패의 원인의 하나로 종종 대두된다.

### 2. 특별한 면

의료선교사역을 결정하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소명의식과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모든 일을 그의 인도에 맡길 수 있다. 때때로 선교사는 하나님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는 분이라고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없이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게 된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앞에 있는 일을 말아야 한다. 그는 그의 선교 그

122) G. Christian Weiss, 선교사 지망생 사역준비, 조용만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1980), 15-23.

123) Ibid., 27.

그룹의 철학이나 목표나 책임을 맡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아래 것을 알아야 한다. 그의 임무, 책임, 행동 거기에 그 선교그룹의 생각과 목표를 알아야 한다.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도 참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선교사역자의 열쇠같은 요소이다. 선교는 항상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의료기구를 세관에서 찾는데 몇 달이 걸리고 운전 면허를 갖는 것도 수달이 걸리고, 전화 놓기는 몇 해를 걸리기도 한다.

행 24:25-27은 바울이 뇌물을 요구하는 벨릭스(Felix)를 저항한 것을 본다. 해외에서 여러 상황이 선교사들의 도덕적 기준을 점검할 것이다. 어떤 나라의 관습, 법은 매우 부당해 보이는 것도 있다.

빌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다 더 생각하는 예수의 태도를 가지는 자가 종이다. 그는 인정받고 감사의 인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 섬기는 자세없이 선교사는 불평밖에 없게 된다.

의료선교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의 하나는 피선교자의 문화보다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그와 그의 문화, 그의 나라가 매우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다. 의료장비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피선교자의 마음을 닫게 만든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만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의료선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의료선교를 기초로 그 실과 허를 평가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의료선교의 패러다임인 단기의료선교와 자비량선교는 나름대로 장, 단점을 모두 갖고 있지만 선교여건이 더욱 나빠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인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의료선교사에 대한 올바른 자질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 9 장

### 결 론

#### 제 1 절 요약

한국사회는 그 동안 뿌리깊은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길 드러진 여성 또한 남성에게 종속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출은 당연히 좌절되었고 남성이 지니지 못한 여성 고유의 자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였다.

여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입장은 비단 일반 사회의 현상만은 아니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사역참여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교적 효율성조차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구약의 가부장적인 제도로 말미암기도 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몇 몇 권면들에 대한 그릇된 해석의 결과였다. 성서 해석자들은 바울의 복음의 상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남성 위주의 성경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경해석은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눈부신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폐쇄성과 맞물려 여성의 사역참여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약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있었던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적극적이며 긍정적이었다. 예수님은 여성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고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에 그들을 기꺼이 초대하였다. 이제 여성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고무적으로 응답한 여성들의 모임 중 하나가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를 통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특히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여성 의료인을 비롯한 간호사들의 선교를 통해 사회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의료를 전달하여 전인치료의 사역에 이바지해왔다.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여성들은 사역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선교에서의 효율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여성도 이제는 사역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전문인 사역, 특히 의료사역에 있어서 여성만의 섬세함은 선교 대상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21세기를 맞이한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는 새로운 의료사역의 도약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의 사역참여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VISION 21'은 호산나 의료 선교 센터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으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여성은 더 이상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다. 오히려 힘든 선교적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무궁한 자원일 뿐이다. 복음에 대해 적대시하는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문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 여성들의 사역참여는 세계 복음화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피 선교국가들로부터 의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여성 의료인들의 참여는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제 2 절 제 언

의료계는 비교적 확실한 미래와 지위를 보장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작 선교사로 파송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얼마나 많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며 사회적인 유혹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선교 헌신자 개인이 뛰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여성 의료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남성들보다도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여성 의료인들의 활동은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역참여는 더욱 조장되어야 하고 격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년에 전문의가 약 3,600명이 배출되어 나온다. 벌써 모두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곳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1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전문의가 전부 합하여도 2천명이 안 된다. 그곳에는 의사가 없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 들어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가. 하지만 많은 여성 의료인들이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 선교현장에 뛰어들려면 신학도 해야되고 후원할 사람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또 나가더라도 단기로 몇 년만 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 돌아온 후에 자리가 있을 지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우려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량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의료선교사들이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실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여성들의 우리의 선택이다.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제 3 절 21세기 의료 선교의 방향

논문을 마치며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을 위해 21세기의 의료 선교의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 1. 미전도 종족을 집중하는 선교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언어와 인종이 서로 다른 12,000개의 종족 집단이 있다. 그중 5,310개의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나 사역자가 없는 종족 집단을 말한다. 그 인구는 145개국에 38억 8000만 이상 된다. 이들은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찾으시는 사람들이다.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은 10/40 사각지대(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북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 사이지역/ 모슬렘, 유대교, 불교, 정령숭배 지역)에 있으며 그들을 위한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비그리스도인 인구증가를 기독교 인구 증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전 세계 선교자원의 99.9퍼센트가 이미 기독교화 된

나라에 쓰이고 있으며, 0.1퍼센트만이 미전도종족 집단에 할당되어 있다. 기독교 의료인들도 이러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 2 여성 의료 선교사의 양성

미전도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선교가 어려운 나라이다. 선교사 비자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선교사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 노동자, 무역업자, 학생, 기능인, 전문직업인, 사업가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선교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특사 혹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부른다. 전문인 선교사는 정규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 후문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21세기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선교사는 여성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이 나아질수록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건강의 문제이며 이의 수혜자의 대부분은 아이들과 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 3. 공동체 회복 운동

최근 의료 선교의 방향은 단순한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을 지향하여 공동체 회복 운동으로 가고 있다. CHE(Community/Health/Evangelism) 선교 프로그램이 새로운 의료 선교의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의료 선교사와 선교지의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운동으로 개인의 변화는 물론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원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풍성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는 먼저 선택된 원주민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배운 것들을 이웃에게 전달하여 성취된다. 이 프로그램의 철학은 의료 선교는 영적인 문제의 동반자로 보면서 전도(Evangelism)와 제자훈련(Discipleship)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 증진(Community Health)을 함께 가야 하는 사역으로 보며, 의료선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했는가에 있다고 본다. 또한 선교가 선교사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협력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의료 선교사는 의료행위만 하지 않고 제자훈련 사역에도 헌신해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역에 소외 되어 왔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왕성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의료선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 여성들이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강문석, 선교신학 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강성필, "한국교회 여성선교사의 실태와 문제점," 미션월드, 1999년 4-5월호.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편, 설립이념구현을 위한 간호학과 특성화 전략, 서울: 고신대 출판부, 1999.
- 권성수, "성경적 가정질서관," 목회와 신학, 1993년 6월호.
- 김남식 편저, 네비우스 선교방법,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김연진, 선교신학 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김호식, "한국교회와 여성신도," 월간목회, 1994년 7월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여성안수 연구 보고서, (1991. 6. 2 미발행).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회의록, 17회(1928), 제22회(1933), (미발행).
- 두산동아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Vol.20, 서울: 두산동아, 1996.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8.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4.
- 손인철, "한말, 일제 치하의 사학사 연구," 한국 근대 교육사, 서울: 연세대학교, 1971.
- 심창섭, "재롭게 조명해본 종교개혁자들의 여성관: 요한 칼빈을 중심으로," 목회와 신학, 1993년 3월호.
- 안상님, 여성 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두란노서원, 1991.
- 유춘자 외 12인,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1.
- 이규호, 여성과 현대사회, 서울: 연세대 출판사, 1976.
- 이기문 편저, 기독교대백과사전, Vols. 11, 12, 서울: 기독교문사, 1984.



- 이상규, 의료선교의 간략한 역사, 서울: 한국 누가회 출판부, 2000.
- 이연옥, 교회 여성 지도자, 서울: 콤파 출판사, 1993.
- 이영숙, "1957-84 여성 중심으로 사회 변동 연구," 기독교 사상, 1991년 5월호.
- 이옥수, 한국 근세 여성 사회 하, 서울: 규문각, 1985.
-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 이정우, 한국 도시 여성의 가치관 연구, 서울: 숙명여대 출판부, 1998.
- 이화여자대학교 편, 한국여성사, Vol.2, 서울: 이화 출판부, 1972.
- 전봉증 편저, 교회사 대사전, Vol.3, 서울: 기독지혜사, 1994.
- 전희근, 선교와 의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정석기, 주님의 여성이 되려면, 서울: 나눔사, 1993.
- 정석기, 한국기독교여성인물사, 서울: 콤파 출판사, 1995.
-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혜선 문화사, 1979.
- 채은수, 선교학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 한경철, "여성 선교사의 필요성과 역할," 미션월드, 1999년 4-5월호.

## 2 번역 서적

- Adeney, David H. 예비 선교사를 위하여, IVP 역, 서울: IVP, 1982.
- Barrett, C. K. 고린도전서, 국제성서주석, 한국 신학 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Calvin, John. 신약성경주석, Vol.9, 성경주해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1.
- Kane, J. Herbert. 세계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3.
- Lenski, R. C. H. 누가복음, 진요섭 역, 주석성경, 서울: 백합출판사, 1977.
- Marshall, I. Howard. 누가복음, Vol.1, 강요섭 역,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Rice, H. 여성 목회와 영적 지도, 최대형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 Stott, John. 결혼과 이혼, 김원주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1.
- Weiss, G. Christian. 선교사 지망생 사역준비, 조용만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Wilson Jr., J. Christy,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만풍 역, 서울: 순 출판사, 1989.  
야마모리, 데츄나오, 직업선교, 이득수 편역, 서울: IVP, 1990.

### 3. 외국 서적

Abbatt, F. R., McMahan, R. Teaching health Care Workers, London: MacMillan, 1985.

Aeschiman, G. The Short Term Mission Handbook, IL: Berry Publishing, 1991.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andbook of 1st Aid & Emergency Care, N.Y.: Ransome, 1990.

Bavinc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 Presby. & Ref. Publishing, 1960.

Blum, George Gunter, "The Office of Women in the NT," The Churchman, A quarterly Journal of Anglican Theology 85/3 (1971).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Bowen, J. "Women's Roles in Mission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1989).

Buttrick, George, ed The Interpreter's Bible, Vol. 10, Nashville: Abingdon, 1943.

Chon, H. and Y. H. Kim, Short Term Mission in Korean Church, Philadelphia: KUMC, 1991.

\_\_\_\_\_,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Wheaton, Ill: Billy Graham Center, 1991.

Clark, E., and H. Richardson, ed Women and Religion: Feminist Source Book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77.

Cook, Harold, Missionary life & Work, Chicago: Moody Press, 1959.

Ferguson, S. B.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 Grove, IL: IVP, 1980.

Hurley, James B. Man and Women in B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81.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76.

Kesley, M. T. Encounter with God, San Francisco: Harper, 1988.

Kittel, G., and G.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 Vo.3, Grand Rapids: Eerdmans, 1965.
- MacNutt, Francis, Healing, Notre Dame, IN: Ave Maria Press, 1974.
- Maddox, Robert, The Purpose of Luke-Acts, Edinburgh: T & T Clark, 1982.
-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1986.
- Park, L.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Yon Sei Press, 1987.
- Quesnell, Quewtin, "The Women at Luke's Supper," Political Issues in Luke-Acts, Maryknoll, N. Y: Orbis, 1983.
- Ruether, R. R, Sexism and God-Talk: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s, 1983.
- \_\_\_\_\_, Religion and Sexis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3.
- Seanzoni, Letha, and Nancy Hardesty, All We're Meant To Be, Texas: Word Books, Publisher Waco, 1974.
- Shelly, Judith A., and Arlene B. Miller, Called to Care: Caring & Christian Story, Illinois: IVP, 1999.
- Swidler, Leonard, Biblical Affirmations of Wome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Williams, Don, The Apostle Paul and Woman in the Church, Los Angeles: BIM Publishing Co., 1977.

Vita of  
Priscilla Park

Present Position:

Minister of Hosanna Medical Clinic Inc., CA, USA

Personal Data:

Birthdate: August 15, 1947

Marital Status: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Ho Seong Park

Home Address: 800 S. Vermont Ave, #101

LA CA 90005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Education:

B. A.: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A, CA 1992

M. Div.: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CA, 1999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3

Personal Experience:

5/1993 to 5/1997	Part-time Ministe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LA, USA
9/1998 to present	Intern Minister of Hosanna Medical Clinic, Inc., LA, USA